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60호 [투게 제24573호] 주제 103(2014)년 6월 9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사설

### 농작물비배관리에 모든 역량을 총집중하자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 참호인 농업전선에 용약 펼쳐나선 온 나라 인민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적기에 질적으로 심어진 농작물들이 대지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현실은 우리앞에 모내기때의 그 기백, 그 기세를 늦추지 말고 농작물 비배관리에 모든 힘을 총집중, 총동원하여 포기마다 알찬 열매가 주렁주렁 익도록 함으로써 사회주의혁명동맹에 싹틔워 쏠아지는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것을 요구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올해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농업을 주된 방향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야 합니다.》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고지를 거이이 점령하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뜻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와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강령적사에서 올해농사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과정과 방도들을 밝히 밝혀 주시였으며 농업을 주타격방향으로, 농업전선을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 제1제대 제1선참호로 내세우시고 알곡고지점령을 위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주시었다. 올해 농사를 잘 지어 싹틔워 쏠아지고

만풍년의 향기 넘쳐나 집집마다에 인민들의 웃음꽃이 활짝 피게 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구상과 뜻을 받들고 모내기 때처럼 총집중, 총동원되어 모든 는발을 꽃밭처럼 가꾸어 풍년작황을 마련하는것은 우리모두가 지닌 영예로운 의무이고 마땅한 도리이다.

사회주의혁명동맹이 여름철농전투에로 우리를 부르고있다.

모내기를 끝냈다고 속돌릴 때가 아니다. 가을걷이철까지는 거의 100일간 남아있다. 알곡증산의 중요한 예비의 하나가 바로 이 기간의 여름철비배관리를 잘하는데 있다. 아무리 모내기와 강행, 풍미를 잘 지키는 작적이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비배관리를 잘못하면 헛일로 되고 만다. 김을 매고 비료와 물을 주며 병해충피해를 막아야 하는 비배관리는 한해농사에서 시간만이 아니라 로력이 제일 많이 드는 연속공정이다. 근 백날을 하루와 같이 긴장하게 일해야 하는것이 농작물비배관리인것만은 누구나 잘도리할 단단히 하고 모내기때처럼 총동원되어 책임을 들여야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비배관리는 어렵고 복잡한 기술

로동이다. 농업생산의 과학화, 집약화가 급속도로 실현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김매기와 비료주기, 물관리, 병해충피해방지 등 비배관리 전 과정에 높은 책임성과 과학기술로 담보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지난 시기 장마철과 삼복철의 예측하기 힘든 기후변동이 농작물생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조건에서 순간의 해이도 없이 비배관리의 모든 공정을 제때에 질적으로 해야 하는것이 여름철농전투이다. 농작물심기를 끝냈다고 생각해 놓으면 흉년이 들고 계속 박차를 가하면 흉년이 든다 이것이 우리 농촌들에서 잦은 교훈이다.

올해 우리의 투쟁은 인민의 아름다운 리상과 꿈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빛나게 장식할 대추진장과 잇닿아있는 승리의 전진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건설장마에서 발휘한 인민군대의 결사관마에에서 발휘한 인민군대의 결사관마에의 정신과 투쟁기풍을 본받아 올해 알곡고지점령을 위한 여름철농전투에서 새로운 혁신을 창조하여야 한다.

김매기전투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야 한다.

김을 잘 매면 비료를 한번 더 준

것과 같다. 지난 시기 경험은 눈에서 김을 잘 잡으면 10~20%의 비료를 더 생산하며 강행이발 비배관리까지 질적으로 하면 정보당 1.5~1.8의 소출을 더 낼수 있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모든 농기 장마철과 삼복철의 예측하기 힘든 기후변동이 농작물생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조건에서 순간의 해이도 없이 비배관리의 모든 공정을 제때에 질적으로 해야 하는것이 여름철농전투이다. 농작물심기를 끝냈다고 생각해 놓으면 흉년이 들고 계속 박차를 가하면 흉년이 든다 이것이 우리 농촌들에서 잦은 교훈이다.

올해 우리의 투쟁은 인민의 아름다운 리상과 꿈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빛나게 장식할 대추진장과 잇닿아있는 승리의 전진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건설장마에서 발휘한 인민군대의 결사관마에에서 발휘한 인민군대의 결사관마에의 정신과 투쟁기풍을 본받아 올해 알곡고지점령을 위한 여름철농전투에서 새로운 혁신을 창조하여야 한다.

김매기전투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야 한다.

김을 잘 매면 비료를 한번 더 준

것과 같다. 지난 시기 경험은 눈에서 김을 잘 잡으면 10~20%의 비료를 더 생산하며 강행이발 비배관리까지 질적으로 하면 정보당 1.5~1.8의 소출을 더 낼수 있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모든 농기 장마철과 삼복철의 예측하기 힘든 기후변동이 농작물생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조건에서 순간의 해이도 없이 비배관리의 모든 공정을 제때에 질적으로 해야 하는것이 여름철농전투이다. 농작물심기를 끝냈다고 생각해 놓으면 흉년이 들고 계속 박차를 가하면 흉년이 든다 이것이 우리 농촌들에서 잦은 교훈이다.

올해 우리의 투쟁은 인민의 아름다운 리상과 꿈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빛나게 장식할 대추진장과 잇닿아있는 승리의 전진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건설장마에서 발휘한 인민군대의 결사관마에에서 발휘한 인민군대의 결사관마에의 정신과 투쟁기풍을 본받아 올해 알곡고지점령을 위한 여름철농전투에서 새로운 혁신을 창조하여야 한다.

김매기전투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야 한다.

김을 잘 매면 비료를 한번 더 준

물보장과 물관리에 힘을 넣어야 한다.

물은 농업의 생명수이다. 논농사이자 물농사이고 물을 떠난 논작물생육과 결실은 생각할수 없다. 올해에 들어와 메논에 보기 드문 왕가물현상이 나타나 불철영농전투에 난관을 조성했던 현실은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관수대책을 혁명적으로 세울것을 요구하고있다. 물관리소, 관개관리소들에서는 지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물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농촌들에서는 물원천을 적극 찾아내고 일기조건과 모진병 및 품종특성, 생육상태에 맞게 알맞은 관수방법을 받아들여 효과있게 이용하여야 한다. 강줄기에 띄워가 나을 때 일기 하루시들면 수확과 10%, 4~5일 시들면 30~35%나 감소되는것만큼 관수방법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하여 수분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병해충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예견성있게 세워야 한다.

올해의 변덕스러운 자연기후상태는 병해충발생률이 높아질수 있는 조건을 조성해주고있다. 농촌들에서는 예견성있게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병해충예찰을 강화하며 효율 높은

기가 많은 포전을 만듦처럼 포전으로 되게 비배관리를 기술적요구대로 하며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일제계획수행에 기여하여야 한다. 모든 농업근로자들은 실농근로자라면 잘 익은 이삭을, 진달같이향연 축정이이삭을 주는것이 땅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애국의 마음을 다 바쳐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이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모내기때처럼 협동력이 들끓도록 화선선전, 화선선동을 반력있게 벌려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의 애국심을 북돋아주고 사회주의중산경쟁조직과 총화형가사업을 구체적으로 하여 그들의 경영의를 더욱 높여주어야 한다. 좋은 경험과 소행을 제때에 찾아 모든 대중을 이끌어내야 한다. 전형단위를 창조하고 다른 농장, 작은 단위를 따라잡기 위한 추진전을 맹렬히 벌리게 하며 영농전투에서 혁신이 일어나도록 기술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작업반, 분조들에서 분조관리제의 요구대로 분조담당책임제를 정확히 실시하여 농업근로자들이 주어진 자각을 가지고 농작물비배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업근로자들은 농사의 주인이다. 모두가 농사를 (수를 따지는 경제실적문제)가 아니라 사회주의를 지켜내느냐, 혁명의 명맥을 이어나가는냐 하는 중요한 정치적으로 보고 비배관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시비공, 시약공, 물관리공을 비롯한 농업근로자들은 자

## 집단적경쟁열풍으로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가져오자

### 200여명의 연간계획완수자 배출 질적 비약과 경쟁

방직공업관리국 아래 각지 공장들에서

방직공업관리국아래 각지 공장들에서 다기계운동의 불길드 높이 천생산에서 집단적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관리국적으로 지난 5월달현재 200여명의 연간계획완수자가 배출되었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혁신자대렬이 2배이상으로 늘어났으므로 된다.

많은 연간계획완수자들이 나옴과 집단적경쟁열풍이 더욱 맹렬하게 불어치는 속에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방직공업관리국적으로 공업총생산액을 10.9%로 달성시켰다.

방직공업부문에서 세차게 일고있는 사회주의경쟁바람은 강

성국가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위훈을 세우려는 각지 로동계급이 조선속도창조의 기상을 더 높이 펼쳐갈수 있게 하는 고무적힘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와 사회에서 오중급 7련대칭호쟁취운동과 3대혁명운동기쟁취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며 부문별, 단위별, 지역별, 단계를 맹렬한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 온 나라에 집단적경쟁열풍이 휘몰아치게 하여야 합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로동계급이 보담의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다기계운동의 앞장에

섰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속에 솟아난 훌륭한 로동자합속에 보급자리를 편 끝없는 영광과 행복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질풍을 더 많이 쐬는것으로 그 운정에 보답하기 위해 애국의 더운 땀을 바쳐가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매달 직장앞에 맡겨진 천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온 직조종합직장 1직 조직장 직조공들의 대적적영웅주의는 공장의 전체 종업원들을 위훈창조로 힘있게 떠밀어주었고있다. 직조공 김영심, 김옥향 등우들이 2년분생산계획을 제일먼저 수행하였고 수십명의 연간계획완수자들이 직장에서 배출되고있다.

직조공 서진향, 정방공 한은경 등우를 비롯한 20여명의 방직공들이 연간계획완수자대렬에 당당히 들어서 공장의 영예를 높여주고있다. 관리국의 축하의 꽃다발속에 더 높이 비약하고있다.

한중모방직공장의 방직공들이 분발해나섰다.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현대화된 생산공정이 커다란 은을 내도록 설비에 정통하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집단적혁신을 이룩해나가고있는 수많은 방직공들속에 쌍둥이혁신자로 소문난 여명, 여명공 등우들도 있다. 직조공 정옥실, 연사공 김순수 등우를 비롯한 공장의 30여명의 방직공들이 연간계획완수자대렬에 들어섰고 그들의 대오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있다.

9월방직공장의 방직공들도 앞서거니뒤서거니하면서 경쟁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지난 5월달현재 연간계획을 110%로 넘쳐 수행하고 앞장서는 정방공 김옥영 등우를 비롯하여 직조공 림충심, 김유경 등우와 10여명의 방직공들은 연간계획완수자대렬에 당당히 들어선 공지와 자부심에 넘쳐났다.

구성방직공장과 각지 직물공장들에서도 연간계획을 완수한 혁신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집단적경쟁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명흥숙

◇ 질제고!

인민소비품생산단위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라면 누구나 임버릇처럼 의우근 하는 말이다.

짧은 이 말의 무게를 다 알려면 내 조국의 푸른 하늘가에 휘날리는 공화국기를 바라보아야 한다. 제품의 질은 나라의 얼굴이다. 나라의 경제기술발전수준과 문명적도 여가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질제고는 실무적인 문제이기 전에 인민들에게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더해주고 우리 당의 장성국가건설구상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사업이다.

조선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으로 들끓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인민소비품생산단위에서 《더 많이!》라는 항적장성과 함께 《더 좋게!》라는 질적비약을 일으킬것을 요구하고있다. 항적장성과 함께 질적비약, 바로 이것이 인민소비품생산부문에서 창조되어야 할 조선속도라고 말할수 있다.

◇ 경쟁속에 발전이 있고 비약도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공장, 기업소들사이에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쟁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난해말에 진행된 제7차 평양대 1백화점상품 전시회파장을 다시 상기시켜볼 필요가 있다. 왜 사람들은 문수식료공장 전시대앞에서 오래동안 발길을 떼지 못했는가. 물론 이 공장보다 생산 규모나 기술발전수준에서 비할바없이 크고 높은 수준에 있는 공장들도 많았다. 전시회에 출품된 상품들의 질에서도 현저한 차이가 있었던것만은 부정할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람자들이 문수식료공장이라는 이름을 주시한것은 중앙공업공장에 못지 않은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해 애를 기울이는 자그마한 지방공업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노력을 귀중히 여기기때문이다. 그 소중한 싸에서 자라날 래일의 열매를 그려보았기때문이다.

《술취히 이번 전시회에 내놓았던 상품들은 지난해 전시회때와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뒤를 바짝 따르고있는 단위들을 보며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진보가 없이는 어제날의 선구자도 오늘에는 락오수가 떨어질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전시회장에서 만났던 선홍색로공장의 한 일군의 말이다.

선홍색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화장품, 피복, 신발, 일용품을 비롯하여 인민소비품을 생산하는 모든 부문에서 이런 경쟁열풍을 일으켜야 한다. 앞섰다고 자만하지 말고 뒤떨어졌다고 맥을 놓지 말아야 한다. 질제고를 위한 사업에서는 《이 좀더!》이라는 만족이 있을수 없으며 《우리 단위》의 물질기술적토대로는...》하면서 패배주의가 섞인 경성단위가 많을수록 발전이 추동되며 서로 돕고 이끌어 내달리는 보폭이 커질수록 조국의 전진이 빨라진다. 작은 단위이건 큰 단위이건 경쟁마당에 뛰어들어 자기 단위의 얼굴이라고 할수 있는 제품들을 하나하나 계속 내놓아야 한다.

◇ 평가는 인민이 한다.

《어느 공장 상품입니까?》

상품들을 마주한 인민들의 목소리이다. 질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제품들을 놓고도 인민들은 제일치럼 안타까와하며 그 생산단위의 이름부터 묻곤 한다.

경쟁결과를 평가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수 없다. 인민이 제정자이며 합격도량도 인민이 쥐고있다. 인민의 요구에서 일감을 찾은 일군, 인민의 평가에서 결함을 찾을 줄 아는 일군만이 인민생활에 필요한 제품들을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할수 있다.

식료품, 화장품, 신발 등 여러 인민소비품생산 부문에서 어제는 다른 나라 상품들을 하나하나 밀어냈다면 오늘에는 세계를 뒤흔들고 오를것을 바라는것이 바로 우리 인민이다. 오늘은 이 공장에서 인기가 상품이 나왔다면 테일은 또 다른 공장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상품들이 나올것을 기대하고있는것도 인민의 심정이다.

인민이 호소하고있다.

우리의 상표를 단 제품들을 더 많이, 더 좋게! 인민소비품생산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인민의 이 목소리, 이 기대를 명심하고 《조국찬가》의 노래를 심장으로 함창하며 내달려야 한다.

모두다 경쟁속에 창조하고 경쟁속에 비약하자! 새로운 시대속도, 조선속도창조를 위해 질풍같이 앞으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생산률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 원양선단이 만단의 준비를 갖추다

동해의 수산사업소들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명령지시라면 산악같이 펼쳐있거나 불길을 가리지 않고 거이해내야하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서해에서 울린 승전포성이 동해에 메아리쳐가고있다.

동해안의 수산사업소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주요어장이 서해에서 울린 포성이 울려오지 않았지만 만만치 않은 잡도리멸에 경쟁열을 고조시키고있다. 지금 여름철물고기잡이의 첫시작부터 기세를 올리고있는 어로공들도 동해는 부글부글 끓어넘치고있다.

당의 수산정책관철투쟁에 산악같이 펼쳐나선 어로공들은 물

고기메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맞받아나가는 공격진을 틀어대고있다. 물고기들의 생활습성에 맞는 불빛으로, 덩어리로 물 비터한 여러가지 작업방법들을 받아들여 생산실적을 나날이 높이고있다.

특히 올해 물고기잡이계획의 많은 몫을 맡은 원양선단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수산성에서는 가까운바다에서 수 조만 마다에서도 잠을 깨게 대한 당의 수산정책의 요구대로 원양선을 증시하고 여기에 큰 힘을 넣었다. 성인의 일군들은 서해어장에서 물고기잡이전투를 박력있게 내미는것과 동시에 동해에서도 립체적으로 일관된 전진해하고있다.

배수리와 어구를 비롯한 원양

어업준비를 면밀히 갖추는 사업으로 주요수산사업소들이 부글부글 끓어넘치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서해와 동해사이의 물고기잡이경쟁을 호소하고 있는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전례없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결과 지난 시기에 비해 한 달이상 앞당겨 배수리가 기본적으로 끝나고 그물을 비롯한 고기잡이수단들이 충분히 갖추어졌다. 동해안의 홍원, 신포, 통천수산사업소들의 능력이 큰 하복설비와 맹동설비들을 정비보수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공사도 힘있게 추진되었다.

만단의 준비를 갖춘 원양선단은 50척의 큰 고기배들과 수천1급의 가공용반선 2척으로 구성되었다. 선단은 현대적인 함색설비들이 장비되었으며 원

양어업경험이 풍부한 선장들이 물고기잡이를 지휘하게 된다. 어로공들이 100여일간 바다에서 생활할수 있는 물질적조건과 문화정서생활조건들이 보다 충분히 갖추어지고있다.

얼마 안되어 동해의 각지 수산사업소의 고기배들은 가까운 바다에서도 잡고 먼바다에서도 물고기잡이전투를 벌일때 대한 당의 수산정책을 높이 받들고 애환조건이 좋은 먼바다로 떠난다. 가는 알기에 세한 풍랑이 막아선다 해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는 용맹한 어로공들의 총성의 열도는 식히지 못할것이며 서해에서 울린 승전포성이 먼바다에서도 크게 메아리칠것이다.

본사기자 전성삼

당일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발전속도를 제기일에 끝내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 평안남도러단에서-



본사기자 전성삼

# 우리 당을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어머니당으로

어머니!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을 이렇게 정답아 부른다.

이 어머니없이 나는 못살아!  
이것은 우리 당을 우리러 더친 한 시인의 목소리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의 심장 의 고백이다.

어제도 오늘도 인민들로부터 어머니로 불리우고있는 당,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어머니당—조선로동당!

우리 당이 것처럼 어머니로 불리우며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을수 있게 된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을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고 인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부무하며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기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이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으며 자기의 령도적지위를 끊임없이 강화할수 있는것은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진 어머니당으로서의 본분을 훌륭히 수행하여왔기때문이다.》 사회주의정치는 본질에 있어서 인적정치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실시하려면 사회주의집권당을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지닌 정치지도자를 모셔야 한다.

어머니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력사는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하여 시작되었으며 수령님과 똑같은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심으로 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어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첫 시기부터 어머니가 자식을 극진히 사랑하고 따듯이 돌봐주듯이 우리 당이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세심히 보살펴주는 진정한 인민의 령도자,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를 비롯한 불멸의 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주며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할 우리 당의 력사적사명에 대하여 밝혀주시였으며 우리 당의 모든 활동이 철저히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출발하고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것을 첫차리에 놓고 진행되도록 하시였다.

우리 당이 어머니당으로서의 자기의 사랑과 역할을 다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의 기록하고 특출한 령도품모는 력사상 그 어느 정치지도자에서든 찾아볼수 없는 숭고한 인민관의 발현이었다.

그와 관련한 이런 이야기가 있다.  
1980년대에 있는 일이다. 위대한 장군님을 오래동안 몰가까이 모시고 일해는 한 일군이 자신의 체함과 인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장군님의 인민관을 정렬해 보았다. 그가 정렬한 위대한 장군님의 10대 인민관은 다음과 같았다.

- ① 가장 열렬히 숭배하는 《하느님》은 인민
- ② 가장 높이 존경하는 선생은 인민
- ③ 제일 힘있는 존재는 인민
- ④ 제일 재능있는 창조자는 인민
- ⑤ 제일 강한 무기는 인민의 일심단결



도당선전비서회의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제63(1974)년 2월

- ⑥ 가장 큰 념원은 자주성이 실현된 인민의 라틴 건설
  - ⑦ 가장 큰 기쁨은 인민의 행복
  - ⑧ 가장 큰 괴로움은 인민의 불행
  - ⑨ 가장 큰 분노는 인민의 존엄과 리익에 대한 침해
  - ⑩ 제일 사랑하는 죄무명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 이 10대 인민관을 보아 주신 어머니수령님께서는 얼마나 뜨겁게 말씀하시였는가.  
어머니수령님께서는 김정일동지의 10대 인민관은 어느 조항이나 김정일동지의 말에 기초한것이므로 보충할것도 덜것도 없다고 하시면서 김정일동지처럼 인민을

숭배하고 존대하며 사랑하는 위인은 이 세상에 없다고. 김정일동지의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은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선영으로 존대하며 인민들과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고 운명도 같이하는 숭고한 인민관에서 흘러나온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혁명은 인민에 대한 최대의 사랑이고 인민에 대한 사랑은 정치의 초석이라고 하시면서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고 인민의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심으로 하여 우리 당력사에는 얼마나 가슴뜨거운 사랑과 믿음의 화폭들이 새겨졌던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느 한 단위에서 나타난 군중파의 사업에서의 편향을 두고 어머니는 자식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한 당원의 정치생활에 대해 친히 비중하시고 그에게 더 중요하고 책임적인 임무를 맡기도록 하신 그런 믿음과 사랑의 이야기가 장군님의 령도 밑에 우리 당사원에서 일대 전환이 일어나고있던 1970년대에만 새겨져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였던 사람들의 기억속에서도 희미해진 한 실재가 잊지 않고서도 묵묵히 향시적으로 일하며 나라의 진척발전에 한몸바치다가 삶을 마친 그에게 우리 장군님께서 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하시어 남모르던 생이 세상에 빛나게 된 1980년대 그날의 이야기는 우리 당을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어머니당으로 건설

하여오신 철세위인의 빛나는 령도사를 가슴뜨겁게 되새겨주고있다.  
1990년대, 생강의 봉화가 세차게 타오른 그 나날의 한 갈피에도 그런 이야기가 깃들여있었으니 위대한 장군님께서 고행에 병거가 있어 뿔뿔을 때치듯 일차리를 내지 못해 마음속고충을 안고있던 성진제강련합기업소의 오랜 일군을 두고 인생삼바리를 잘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중요한 철강재생산업에 친히 맡겨주시어 그가 빛나는 삶을 누리게 하신 사실 역시 어머니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력사가 과연 어떻게 창조되고 즐기게 흘러왔는가를 절감하게 한다.  
지금도 우리 인민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

그 품에 맡겨진 인생

이 평면 버림받은 운명이란 없다. 한 시인의 인생이 또한 그것을 말해준다. 그는 우리 인민들이 사랑하는 서정시 《어머니》의 필자이다. 그가 남긴 수기엔 이런 대목이 있다.

1950년대말—1960년대초에 나의 인생길에는 나 자신이 법한 생활에서의 업종한 파으로 해서 도무지 헤어날수 없는 일이 생겨났다. 나는 당조직의 권고도, 동지들의 방지도 성근히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파으로 떠돌아다니지 않았다. ...인생의 로년기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철들기 시작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늦게나마 파으로 깨닫고 번뇌하고 고민에 몰부림했으며 가까웠던 친지들과 파문단의 벼들에서조차 소외당하는 자신에 대한 저주와 고독까지 맞이하였다. 그럴수록 그는 더한것이지 않았다. 그는 혁명이라는 거창한 흐름과 조국에 바치는 로동 속에서 피리개 체합하고 그 깃바를 피력하였다. 그 과정에 《만수대》, 《금요로》, 《다시 오리》와 같은 시도 쓰게 되었다.

그런데 뜻밖의 소식에 접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 시들을 보아주신것이다.  
사실은 출장차로 평양을 찾아

만수대언덕에도 오르고 수도의 곳곳을 돌아보면서 솟구치는 시적충동을 글할필 없애 쓴 시였고 문단의 옛 동료들에게 한번 보아달라고 부탁하였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그 시가 바로 《어머니》였다. 그것은 준엄한 싸움길에 하나의 전사 뒤떨어져도 친리길, 만리길을 다시 달려가 붉은기가 휘날리는 대오에 새워주는 우리 장군님의 품, 모든 사람들의 운명과 미래를 책임지고 보살피는 위대한 어머니당이 낳은 시였다. 또한 한 인간이 순환적 인생에서 벗어나는 참다운 인생관의 귀결이 되고 있는것이 아닐까 싶다. 《어머니》를 쓰게 된 경위를 이야기하며 시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서정시 《어머니》는 우리 시대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 새겨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모습입니다. 당은 어머니! 어머니당은 김정일동지! 나는 우리 인민의 말을 그대로 적었을뿐입니다. 어머니당의 품에 맡긴 운명에는 값없는 삶과 생의 환희만 있다는것이 나의 인생총화입니다.》

내 인생이 찾아오며 날이 밝도록 등무해주시지 않았더라면 내 어찌 이날을 맞이할수 있었으리나...  
리고선 땅을 둘러보는 그의 눈은 더욱 커지고 밝아졌다. 위대한 어머니의 자애로운 시선이 비껴있는 강토에서, 그가 파사로운 손길이 만사함을 쓰다듬는 내 조국에서는 막을 버림받은 운명이 없고 잠초로 시들어버릴 삶도 없다는것을 그는 절감하였다.  
그는 눈물속에 붓을 들었다. 인생 체험과 전민적감정을 담아 삶과 운명의 품에 대한 시를 썼다. 그 시가 바로 《어머니》였다. 그것은 준엄한 싸움길에 하나의 전사 뒤떨어져도 친리길, 만리길을 다시 달려가 붉은기가 휘날리는 대오에 새워주는 우리 장군님의 품, 모든 사람들의 운명과 미래를 책임지고 보살피는 위대한 어머니당이 낳은 시였다. 또한 한 인간이 순환적 인생에서 벗어나는 참다운 인생관의 귀결이 되고 있는것이 아닐까 싶다. 《어머니》를 쓰게 된 경위를 이야기하며 시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서정시 《어머니》는 우리 시대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 새겨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모습입니다. 당은 어머니! 어머니당은 김정일동지! 나는 우리 인민의 말을 그대로 적었을뿐입니다. 어머니당의 품에 맡긴 운명에는 값없는 삶과 생의 환희만 있다는것이 나의 인생총화입니다.》

아, 나의 별! 나의 향도성!  
나의 스승이며 지도자이신

내 인생이 찾아오며 날이 밝도록 등무해주시지 않았더라면 내 어찌 이날을 맞이할수 있었으리나...  
리고선 땅을 둘러보는 그의 눈은 더욱 커지고 밝아졌다. 위대한 어머니의 자애로운 시선이 비껴있는 강토에서, 그가 파사로운 손길이 만사함을 쓰다듬는 내 조국에서는 막을 버림받은 운명이 없고 잠초로 시들어버릴 삶도 없다는것을 그는 절감하였다.  
그는 눈물속에 붓을 들었다. 인생 체험과 전민적감정을 담아 삶과 운명의 품에 대한 시를 썼다. 그 시가 바로 《어머니》였다. 그것은 준엄한 싸움길에 하나의 전사 뒤떨어져도 친리길, 만리길을 다시 달려가 붉은기가 휘날리는 대오에 새워주는 우리 장군님의 품, 모든 사람들의 운명과 미래를 책임지고 보살피는 위대한 어머니당이 낳은 시였다. 또한 한 인간이 순환적 인생에서 벗어나는 참다운 인생관의 귀결이 되고 있는것이 아닐까 싶다. 《어머니》를 쓰게 된 경위를 이야기하며 시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서정시 《어머니》는 우리 시대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 새겨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모습입니다. 당은 어머니! 어머니당은 김정일동지! 나는 우리 인민의 말을 그대로 적었을뿐입니다. 어머니당의 품에 맡긴 운명에는 값없는 삶과 생의 환희만 있다는것이 나의 인생총화입니다.》

아, 나의 별! 나의 향도성!  
나의 스승이며 지도자이신

## 장군님과 인민

특수가 있다면 오직 인민이다

10여년전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단위에서 건설한 발전소를 돌아보시였다. 풍치수려한 강가에 발전소가 일떠서고 양양강, 각종 편의시설들과 휴식공간이 꾸려져있었다.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실 평가의 말씀을 기다리고있었다. 그러나 장군님께서는 심각한 표정으로 주변을 빙 둘러싼 울타리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경지좋은 이리런 곳에 울타리를 친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하시면서 여기서 가르침을기게하고 강령이변성기, 국수기같은것을 치러놓고 봉사해주시기때문에 주민들이 가무를 불거나 국수를 느르던 이곳에 많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참다운 인생관의 귀결이 되고 있는것이 아닐까 싶다. 《어머니》를 쓰게 된 경위를 이야기하며 시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서정시 《어머니》는 우리 시대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 새겨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모습입니다. 당은 어머니! 어머니당은 김정일동지! 나는 우리 인민의 말을 그대로 적었을뿐입니다. 어머니당의 품에 맡긴 운명에는 값없는 삶과 생의 환희만 있다는것이 나의 인생총화입니다.》

아, 나의 별! 나의 향도성!  
나의 스승이며 지도자이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울타리를 당장 없애버리라고 엄한 령을 내리시였다.  
우리 사회에 특수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인민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은 일군들의 가슴을 세차게 흔들었다. 인민을 조공이라도 출신하거나 인민의 머리위에 군림하는 현상을 보시면 추호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심으로 하여 우리 당은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되게 되었다.

칼날우에라도 나서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군들속에서 인민에 대한 편견을 바로세워 우리 당을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여오신 나날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수십년전 12월 어느날 당중앙위원회회의는 정치국회의가 소집되었는데 기본에는 한 광산의 로동조건과 관련한 문제였다. 회의에서는 그지 않습니까라고 준절하게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로동자들의 로동조건에

대 무관심한 해당 당의 당책임일군에 대한 집중적인 비판이 있었다.  
회의가 끝나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당책임일군을 부르시였다. 장군님께서는 로동자들의 얼굴에 흑연가루가 묻은것을 빗살같이 여겨온 도당책임일군에게 자신께서는 그 광산의 로동조건이 나쁘다는 보고를 받고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동무가 일을 잘하지 못하

아니었다.  
함께 일대한 동무들이 군관이 되고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고 이전에 데리고있었던 전사들이 상급이 되고 군사부무를 마치고 사회에 나간 전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일군으로 활동하고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병사였다. 그렇다고 오래동안 병사생활을 한 그에게 특별히 차례진것도 없었을 줄이 생각하며 웃으며 자기의 상관이 된 어제날 전사들을 축하해주었고 그로 인하여 그는 전우들을 기쁨속에 배려하였다. 그가 배려하는 단 하나 부대의 싸움준비에 영원히 그를 바치는것뿐이었다. 그것을 위해라면 일생 병사생활을 할 각오가 되어있었다. 진심이 없이는 그렇게 할수 없었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이라 소중히 여기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와 같은 병사들이 있기때문에 우리 당이 강하고 우리 인민군대가 강하다고 하시면서 그가 진짜로 당에 충실한 사람이고 혁명가

아니었다.  
함께 일대한 동무들이 군관이 되고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고 이전에 데리고있었던 전사들이 상급이 되고 군사부무를 마치고 사회에 나간 전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일군으로 활동하고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병사였다. 그렇다고 오래동안 병사생활을 한 그에게 특별히 차례진것도 없었을 줄이 생각하며 웃으며 자기의 상관이 된 어제날 전사들을 축하해주었고 그로 인하여 그는 전우들을 기쁨속에 배려하였다. 그가 배려하는 단 하나 부대의 싸움준비에 영원히 그를 바치는것뿐이었다. 그것을 위해라면 일생 병사생활을 할 각오가 되어있었다. 진심이 없이는 그렇게 할수 없었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이라 소중히 여기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와 같은 병사들이 있기때문에 우리 당이 강하고 우리 인민군대가 강하다고 하시면서 그가 진짜로 당에 충실한 사람이고 혁명가

주는 예술영화 《보춤》은 각이한 생활의 길을 걸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한점의 그늘마저 말끔히 가셔주시는 우리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이 낳은 생활의 산 화폭으로서 수십년전 어느 한 지방에서 있었던 일도 돌이켜보게 하고있다.

그곳에는 지난 조국해방전쟁기 원수들이 감행한 불법압해행위로 하여 《역적》의 가족이라는 루명을 쓰고 피로속에서 살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로 말하면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지지리 못살고 친대반인 사람들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비록 기정사실로 고착된것일지라도 사람들의 정치적인 명과 관련된 문제이것만큼 전쟁시기에 있었던 일을 적들의 교활한 책동과 편편시켜 거들 구체적으로 료해해보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이 인민군대와 내무원으로서 가장한 원수놈들에게 무참히 학살된 사람들의 가족이라는것이 판명되었다. 피살자가족들에게 련사증을 수여하는 날 장내는 눈물의 바다를 이루었다.

속으로 위유구조자 저주받은 자식의 이름을 부르는 로인, 원망하고 또 원망하였던 남편을 부르는 안해, 난생처음 아버지를 찾으려 눈물을 쏟는 아들...  
그날 만사람이 목매어 웨친 《조선로동당 만세!》소리는 인민의 삶과 운명의 위대한 보호자이신 어머니장군님께 드리는 다함없는 감사와 칭송의 목소리였다.

함으로 어머니 우리 당의 력사는 곧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따듯이 보살펴주시는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사랑과 믿음의 력사이며 우리 당의 모습을 온 나라 인민이 자기의 삶과 미래 정적으로 의탁하고 영원히 따르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세상에 펼쳐진 혁명정당건설의 빛나는 새 력사이다. 인민정치는 총하고 투권정치는 망한다고 하시면서 세도, 판로주의를 뿌리뽑도록 하시고 우리 당은 어머니당이 되어야지 못 어머니당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가르쳐주시면서 모든 당일군들이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고 인민의 참된 심부름꾼으로 살며 일하도록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따라 우리 당은 인민대중과 혼연일체가 된 당, 인민에게 충실히 복무하는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되었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을 피도 숨결도 다 나누어주고 바람도 비도 죽을까지도 다 맡아나서주는 우리들의 어머니, 준엄한 싸움길에 하나의 전사 뒤떨어져도 친리길, 만리길 다시 달려가 붉은기가 휘날리는 대오에 새워주는 혁명의 어머니, 하늘가에 울려오고 땅에 묻혔다가 다시 돌아와 안길 영원한 삶의 불로 여가며 끝없이 따르고 진실으로 받든다.

어머니장군님처럼 온 나라 인민을 한몸에 뜨겁게 안으시고 그들길 가는이름 그들을 가르쳐주시고 바라는 소원이면 그 소원을 풀어주시면서 영웅도 미래도 다 맡아안아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령수님을 높이 모시어 우리 당은 오늘도 어머니의 모습을 변함없이 꽃피우고있다.  
어제도 오늘도 정답아 어머니의 모습으로 빛나는 조선로동당!  
영웅도 미래도 다 맡긴 그 품을 인민은 영원히 따를것이다.

본사기자 박 철

어 면목이 없다고 하는데 나에게 용서할필 것이 아니라 로동자들앞에서 사죄하여야 한다. 도당책임비서는 물론 총로도 자신께서 로동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빌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곧 광산에서는 모임이 진행되었다. 도당책임일군의 진정에 넉넉한 사죄와 로동자들의 처분을 바라는 발언의 머리위에 군림하는 현상을 보시면 추호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심으로 하여 우리 당은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되게 되었다.

도당책임일군을 다시 만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산을 중지하고 흑연전조장을 현대적으로 개조할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만일 흑연전조장에 인민경제계획수행에 지장을 주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동무와 내가 법안에 나서야 한다고, 우리는 인민을 위한 일, 로동자들을 위한 일이라면 법이 아니라 잘알아내려도 나서야 한다고 준절하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만사들을 제쳐두고 흑연전조장을 개조하라고 거듭 이리시였다.

본사기자

아니었다.  
함께 일대한 동무들이 군관이 되고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고 이전에 데리고있었던 전사들이 상급이 되고 군사부무를 마치고 사회에 나간 전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일군으로 활동하고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병사였다. 그렇다고 오래동안 병사생활을 한 그에게 특별히 차례진것도 없었을 줄이 생각하며 웃으며 자기의 상관이 된 어제날 전사들을 축하해주었고 그로 인하여 그는 전우들을 기쁨속에 배려하였다. 그가 배려하는 단 하나 부대의 싸움준비에 영원히 그를 바치는것뿐이었다. 그것을 위해라면 일생 병사생활을 할 각오가 되어있었다. 진심이 없이는 그렇게 할수 없었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이라 소중히 여기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와 같은 병사들이 있기때문에 우리 당이 강하고 우리 인민군대가 강하다고 하시면서 그가 진짜로 당에 충실한 사람이고 혁명가

아니었다.  
함께 일대한 동무들이 군관이 되고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고 이전에 데리고있었던 전사들이 상급이 되고 군사부무를 마치고 사회에 나간 전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일군으로 활동하고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병사였다. 그렇다고 오래동안 병사생활을 한 그에게 특별히 차례진것도 없었을 줄이 생각하며 웃으며 자기의 상관이 된 어제날 전사들을 축하해주었고 그로 인하여 그는 전우들을 기쁨속에 배려하였다. 그가 배려하는 단 하나 부대의 싸움준비에 영원히 그를 바치는것뿐이었다. 그것을 위해라면 일생 병사생활을 할 각오가 되어있었다. 진심이 없이는 그렇게 할수 없었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이라 소중히 여기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와 같은 병사들이 있기때문에 우리 당이 강하고 우리 인민군대가 강하다고 하시면서 그가 진짜로 당에 충실한 사람이고 혁명가

아니었다.  
함께 일대한 동무들이 군관이 되고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고 이전에 데리고있었던 전사들이 상급이 되고 군사부무를 마치고 사회에 나간 전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일군으로 활동하고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병사였다. 그렇다고 오래동안 병사생활을 한 그에게 특별히 차례진것도 없었을 줄이 생각하며 웃으며 자기의 상관이 된 어제날 전사들을 축하해주었고 그로 인하여 그는 전우들을 기쁨속에 배려하였다. 그가 배려하는 단 하나 부대의 싸움준비에 영원히 그를 바치는것뿐이었다. 그것을 위해라면 일생 병사생활을 할 각오가 되어있었다. 진심이 없이는 그렇게 할수 없었다.

본사기자 림 정 호

# 조선인민군인들 삼지연혁명전적지 답사, 군민련환모임 진행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인민들이 항일혁명선열들의 발자취를 따라 백두대지를 행군해가고 있다.

6일 리명수를 떠난 답사행군은 배계봉속영지를 돌아보고 삼지연혁명전적지에 도착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태양기를 대오앞에 모시고 삼지연군에 들어선 답사행군대원들은 군의 책임인물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뜨겁게 맞이하였다.

삼지연대기념비를 찾은 행군대원들은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배경으로 항일대전의 청년장군의 모습으로 거역치 서계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다.

답사행군대원들은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자욱이 아로새겨져 있는 삼지연혁명전적지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항일혁명력사가 집대성된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훌륭히 꾸려진 데 대한 해설을 듣고 대기념비를 돌아보았다.

삼지연대기념비참관을 통하여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대지에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전통은 우리 혁명의 만년제보이며 최후승리의 보검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신하였다.

삼지연혁명사적관에서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역사적인 무산지주전공작전을 빛나는 승리로 이끈 불멸의 혁명영적과 아버지장군님께서 삼지연을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꾸려 주신 영도업적을 가슴뜨겁게 새겨안았다.

7일 답사행군은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백두산과 천지인, 삼지연학

생소년군전을 비롯하여 삼지연의 여러곳을 참관하였다. 이날 삼지연에서 군민련환모임이 진행되었다.

모임에서 발언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인민군위원회 위원장 양향철은 력사의 땅 삼지연에 오니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절절해진다고 말하였다.

그는 백두산혁명전을 아는 우리 혁명무력은 세상이 열백번 변하고 그 어떤 광풍이 몰아쳐도 오직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삼지연의 피를 끓여 백두산바람으로 억세게 버려진 혁명의 총대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명도를 맹양에서 총직하게 받들어나갈 것이며 그 길에서 군민대결의 만세소리 더 높이 울려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삼지연군당 책임비서 주태경은 백두산총대를 역세게 틀어쥐고 백두산답사길에 오른 인민군인들을 보니 마치도 위대한 수령님 따라 붉은기를 펼칠 휘날리며 용기백배하여 조국전군의 길을 걸던 항일백두산들을 보는것만 같다고 말하였다.

항일전의 나날에 타오른 투쟁의 불길, 군민대결의 화폭은 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어 더 세차게 타오르고 더 활짝 펼쳐지고있다고 하면서 오늘의 군민련환모임은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이어갈 천만군민의 드넓은 신념을 과시하는 뜻깊은 모임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조선인민군 군관들인 오영일, 김영옥, 백두산 관장 서철화, 백두산일영혁명전적지관리소 소장 장인숙을 비롯한 출연자들은 우리 혁명의 만년제보인 백두의 혁명전통을 마른해주시

무대에 달려나온 제대군인들은 병사시절의 그 정신으로 감자생산에서 비약을 일으키며 결전의 시각이 온다던 인민군인들과 함께 어깨걸고 조국통일대전에 용약 펼쳐나갈것을 결의하였다.

후방가족들은 백두산답사길에 오른 군인들을 보니 초소에 선 아들들을 보는것만 같다고 하면서 조국의 초소를 굳건히 지켜갈것을 바라는 이 나라 어머니들의 마음을 노래 《어머니의 행복》에 담아 무대에 올렸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모시고 건군사상 처음으로 진

행된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에 참가하여 최상최대의 영광과 믿음을 받아안은 녀성비행사 리행성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모두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격동적이며 호소성이 강한 토론들과 노래들은 참가자들 동자구의 인민들에게 넘겨주고 삼지연에서 살고있는 전쟁로병들과 영애군인들을 찾아오 군민의 정을 투여하하였으며 전투정지훈련과 군인생활개선에서 얻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풀리리합주와 야간사격기도 진행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원산영예군인수지가공공장에서 현대화의 열풍이 백두산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율해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인민생활향상에 힘쓰고 있는 애국자, 위훈의 창조자가 될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는 원산영예군인수지가공공장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년초부터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이곳 공장은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없는 단위들중의 하나이다.

하디면 자그마한 지방공업공장이 자체의 힘으로 도의 인민생활과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수지제품생산에서 혁신을 창조해나갈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기술을 끊임없이 혁신하려는 이곳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의 진취적인 일본색에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생산장성의 예비는 과학기술발전이 있습니다.》

김학광동무가 공장의 지배인으로 사임을 시작하던 때까지만 하여도 공장의 기술장비수준은 그리 높지 못하였다. 그는 생산공정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대담하게 혁신할 결의를 안고 이 사업을 자신부터 앞장섰다.

생산설비의 설계와 제작에 필요한 수많은 자재와 기술적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면서 한결같은결심을 현대화를 실현하는데 과정에는 애로도 많았다.

하지만 일군들은 기술자들에게 힘을 주고 신심을 안겨주면서 성공으로 이끌어나갔다. 지배인 자신이 새로운 첨단 과학기술성공과를 생산에 받아들이기 위하여 과학연구기

관과 관련단위의 기술자들을 찾아 세 기술을 적극 배우고 기술혁신의 앞장에서 기술자, 기능공들이 이끌어 팔팔한 사출성형공장을 위한 단상식사출기기를 비롯한 새로운 생산설비들을 고른것을 찾아주었다. 그로 하여 공정은 커다란 실리를 얻을수 있었다. 종전보다 수지제품생산에서 그 가지수가 늘어나고 질도 훨씬 높아졌다.

공장에서는 기술개천사업에서 기록한 귀중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노동자, 기술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쏟고있다.

오늘 공장의 종업원들은 오로 들고 이끄는 집단주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누구나 대중적기술혁신운동에 적극 참가하고있다. 책임부원 김용철동무를 비롯한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여러가지 수지제품들을 마음먹은대로 생산할수 있게 중공성형기를 비롯한 많은 설비들을 훨씬 높이고있다.

이 나날 공장자체로 제작한 사출성형공장을 위한 단상식사출기와 수지천정관산설비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년을 맞으며 진행된 전국과학기술축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늘의 자력갱생은 현대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심장깊이 새겨안은 공장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생산공정현대화의 더 높은 열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특파기자 신 천 일

# 앞그루작물수확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6월의 하루하루

## 농업전선에 당의 두벌농사방침철의 기상 나래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두벌농사에서 성과를 거두는가 못 거두는가 하는것은 로력분배를 어떻게 할지, 영농작업의 시기성을 어떻게 보장하는가 하는것과 밀이 관련되어있습니다.》

당의 두벌농사방침관철에 펼쳐나선 황해남도과 평안북도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앞그루밀보리와 감자수확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작물이 익는즉즉 거두어들일 열의에 넘쳐있다.

### 황해남도에서

황해남도의 협동농에 봄, 가을농경이 펼쳐졌다. 앞그루로 심은 밀보리가 누렇게 익어가는데 맞게 도의 농업근로자들이 수확기와 탈곡기, 트랙터와 소농기구정비 등 수확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가을걷이에 들어갔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시, 군들에서 여러 가지 영농작업을 제때에 거두어들여도록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 돌리고있다.

앞그루작물수확준비에서는 양친군이 앞서나가고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에서는 앞그루작물을 제때에 수확하도록 트랙터와 소농기구수리정비에 깊은 관심을 돌리었다. 군의 일군들은 농기계작업소의

로동자들에게 들어가 능률높은 밀보리종합수확기들이 큰 은을 낼수 있게 수리정비를 제때에 끝내도록 하고있다.

작업소일군들은 다 익은 보리를 적기에 거두어들이면 종합수확기의 리용률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부속품과 사출, 피대류를 앞세워 보정해주었다.

이와 함께 가을농작업을 제때에 걸어들여 탈곡하고 건조시키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고있다.

로동농사에서 큰 몫을 맡고 있는 강령군에서도 종합탈곡기와 이동식탈곡기를 비롯한 농기계를 농기구에 대한 수리정비를 다그쳐 성과를 거두고있다.

드넓은 재벌밭과 연백밭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모

내기를 힘있게 다그치는 한편 앞그루작물인 밀보리와 감자수확준비에 힘을 쏟고있다.

지금 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앞그루작물이 익어가는 차재로 수확에 들어가고 있다.

이에 맞게 도에서는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기계수단을 적극 리용하여 앞그루작물가을걷이를 다그쳐 끝내는 동시에 모내기과 발작물집기를 따르세우도록 영농조직과 지휘를 짜고돌리고있다.

특파기자 리 승 철

### 평안북도에서

평안북도에서 밀보리, 감자를 비롯한 앞그루작물들에 대한 비배관리를 짜고 돌리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도에서는 앞그루작물재배면적을 지난해보다 더 늘인데 맞게 비배관리를 짜고 돌리고 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는 올해 앞그루작물수확준비를 지난해보다 더 높이고 있다.

밀, 보리와 감자를 비롯한 앞그루농사에서는 동맹군이 앞장서고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논밭갈매기에 힘을 쏟으면서 앞그루작물수확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군의 모든 협동농장들에서는 지난해보다 재배면적이 늘어난 밀보리와 감자를 제때에 거두어들일수 있게 조직사업을 짜고돌리고있다.

현재 군에서는 많은 량의 밀보리와 감자를 수확할것으로 보고있다.

군의 모든 협동농장들에서는 애제 가꾼 앞그루작물을 적기에 와따당 수확하여 탈곡할수 있게 트랙터와 탈곡기들에 대한 수리정비를 끝냈다.

이밖에도 구성시와 태천군을 비롯한 모든 시, 군들에서도 앞그루작물 재배에 거두어들여야 할 열의와 힘을 다그쳐 내밀고있다.

올해의 앞그루작물수확을 무조건 수행하려는 도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앞그루작물수확과 뒤그루작물수확을 심기 위한 영농공정은 일정계획대로 진척되고있다.

특파기자 송 창 훈

## 6월의 하루하루

◇앞그루작물수확을 앞둔 요즘 농업부문 일군들의 걸음이 더욱더 빨라지고있다.

《앞그루작물의 커다란 예비는 두벌농사를 잘 짓는데 있는것만큼 우리 일군들이 작전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합니다.》, 《논벼, 강벼 이비배관리를 하면서도 앞그루작물수확과 뒤그루작물수확을 와따당 해쳐야 하는 6월의 하루하루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비단 태천군 은홍협동농장과 함주군 동봉협동농장 일군들의 목소리만이 아니다.

뜻깊은 올해 당이 제시한 앞그루작물수확을 적기에 와따당 수확하여 탈곡할수 있게 트랙터와 탈곡기들에 대한 수리정비를 끝냈다.

이밖에도 구성시와 태천군을 비롯한 모든 시, 군들에서도 앞그루작물 재배에 거두어들여야 할 열의와 힘을 다그쳐 내밀고있다.

올해의 앞그루작물수확을 무조건 수행하려는 도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앞그루작물수확과 뒤그루작물수확을 심기 위한 영농공정은 일정계획대로 진척되고있다.

특파기자 송 창 훈

를 단단히 하고 펼쳐나 준비를 빈틈없이 갖춘 다음 적기에 모든 역량을 총집중하여 앞그루작물수확과 뒤그루작물수확을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영농작업과 지휘를 따르세울 때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6월의 이 하루하루가 일군들이 어떻게 빈틈없이 작전을 세우고 밭이 깊도록 뛰는가에 따라 올해의 앞그루작물을 점령하는가 못하는가 결정적으로 좌우된다.

◇일군들은 6월의 하루하루를 땀땀하게, 보람있게 밟아나가야 한다.

도, 시, 군, 농장일군들은 농업전선을 사회주의호전의 전진선으로,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방향으로 정해준 당의 승과 뜻을 명심하고 앞그루농사에서 다같이 용근출을 내도록 만민히 작전하며 완강하게 실천해나가야 한다.

일군들은 앞그루작물수확작업을 잘 선별하고 가을걷이일정계획을 포진별로, 날마다, 면밀히 세워야 한다. 앞그루작물가을걷이와 뒤그루작물수확은 거의 동시에 진행되는것만큼 농기계의 만가동을 떠나는 성과를 거둘수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농기계수리정비를 질적으로 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앞그루작물수확과 운반, 날달림에서 트랙터도, 수확기, 탈곡기를 비롯한 농기계를 은을 낼수 있는 방도를 찾아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내부예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달구기와 낫을 비롯한 중소농구기들을 충분히 마련해놓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6월의 푸른 전야에 조선 속도창조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게 함으로써 당의 두벌농사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하고 올해 당이 제시한 앞그루작물수확을 기어이 점령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 밀보리탈곡기들이 은을 내게

### 중화군에서

중화군의 협동농장들에서 앞그루밀보리가을걷이준비를 다그치고있다. 주목되는것은 밀보리탈곡기들이 은을 낼수 있게 수리정비를 잘하도록 하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기계와 농업생산설비의 리용률과 가동률을 높이면 그에 대한 수리정비사업도 잘하여야 합니다.》

군에서는 많은 면적의 농경지에 앞그루밀보리를 심는데 맞게 가을걷이와 날달림작업을 짧은 기간에 계속하기 위한 준비사업에 힘을 쏟고있다.

특히 모든 농경지에서 밀보리탈곡기들이 은을 낼수 있게 수리정비를 잘하도록 하고있다.

협동농장들에 나간 일군들은 기술자, 기능공들의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켜 밀보리탈곡기들을 제때에 수리정비하도록 이끌어주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고있다.

일군들이 조직사업을 면밀히 짜고드는것만큼 탈곡기수리정비성과가 오르고있다.

신실스런이 열정적인 기술자, 기능공들은 탈곡기들이 은을 내게 하기 위해 서로의 장

조적지혜와 힘을 합쳐나가고 있다.

그 과정에 세습협동농장의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은 이 탈곡기의 탈곡원리를 수리정비하는데 앞선 기술을 받아들여 그 능률을 더욱 높일수 있게 하였다.

마형협동농장의 기술자, 기능공들도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면서 긴장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그들은 여러가지 자재를 제때로 해결하여 탈곡기들을 수리정비하고있다.

명형협동농장을 비롯한 다른 농장의 기술자, 기능공들도 탈곡기수리정비에 나서는데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고있다.

탈곡기수리정비성과가 오르는것만큼 앞그루밀보리가을걷이를 짧은 기간에 해내며 떨어낼수 있는 전망이 마련되고있다.

군민들의 말에 의하면 이 탈곡기로 날달림작업을 하면 좋은 점이 많다고 한다. 이 탈곡기로 밀보리를 탈린 날달림의 허실을 없앨수 있다.

또한 훨씬 적은 로력으로 날달림을 할수 있다.

지금 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는 탈곡기수리정비에서 성과가 오를수록 보다 높은 목표를 세우고 긴장한 전투를 벌이고있다.

본사기자 김 장 길

## 과학적으로 타산된 감자수확적기

### 평원군 원암협동농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자연기후 조건과 때 지방의 특성에 맞는 과학적인 영농기술, 영농방법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며 그에 기초하여 두벌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앞날을 하고 칸지게 하여야 합니다.》

말년 평원군 원암협동농장을 찾은 우리는 관리위원장 박사 방경모동무와 만나 눈앞 20구마감자수확기기를 6월 20일경으로 정한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과정에 왜 이쪽 일군들이 20일경을 눈앞그루감자수확적기로 정하는가를 잘 알게 되었다.

일군들은 시기별뒤그루모내기 때 따르는 논벼수출도 따져 보았다. 결과 6월 하순에 모내기를 한 경우 20일경에 모내기 때 정방 수확과가 현저히 떨어졌다. 여기로부터 일군은 6월 20일경에 감자를 수확하고 밀수록 빨리 모내기를 할 때 앞뒤그루농작물의 총수확고를 최대한 높일수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이 시기에 감자를 수확하니 여러모로 좋았다. 우선 감자를 일찍 캐거나 늦게 거두어들여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된것은 뒤그루모내기였다. 6월중 어느때에 뒤그루모내기를 하는가에 따라 논벼 정방 수확과가 크게 차이났다. 이것은 앞뒤그루농작물의 총수확고를 최대한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적기를 정할것을 요구하였다.

이런데로부터 일군은 6월 10일경부터 말까지 5일간격으로 감자 정방 수확고를 따져 보았다. 결과 20일경에 감자를 수확하고 밀수록 모내기에 따르는 논벼수출도 따져 보았다. 결과 6월 하순에 모내기를 한 경우 20일경에 모내기 때 정방 수확과가 현저히 떨어졌다. 여기로부터 일군은 6월 20일경에 감자를 수확하고 밀수록 빨리 모내기를 할 때 앞뒤그루농작물의 총수확고를 최대한 높일수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본사기자 윤 용 호

## 과학적으로 타산된 감자수확적기

### 평원군 원암협동농장에서

수확고를 떨어뜨리는 현상을 막을수 있었다. 지난 시기에는 적기보다 앞그루감자를 일찍 캐어 밭이 잘 얼지 못하고 농량감이 적었다. 또한 물기 함량이 많아 소출과 사용가치를 떨어뜨렸으며 다음에도 저장하는데 불리하였다. 반대로 적기보다 늦게 캐면 병충해를 심하게 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현상을 막을수 있었다.

뒤그루모내기에 도 지장을 주지 않고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출을 낼수 있었다.

일군들은 올해의 기후조건을 종합하고 감자생육상태도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과정에 20일경으로 수확적기라는것을 다시금 확고하였다. 또한 적기보장을 위해 수확준비를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내밀었다. 수확하기 10일전에 8~10%의 소금물을 뿌려주게 하였다.

그러면 왕성하게 자라던 일군들의 탄수화물이 감자수로 에 빨리 넘어가게때문에 수확고를 높일수 있었다. 또한 순치기에도 힘을 넣어 감자수확고를 높이게 하였다.

이처럼 과학적으로 잘 따져 보며 수확적기를 정하고 그 준비를 다그치게 한 이곳 일군들의 일본색은 본받을만하다.

본사기자 윤 용 호

## 뒤그루작물수확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있다.

농진군농기계작업소에서 - 특파기자 찍음

## 뒤그루작물수확준비를 착실히

항구구역 도지협동농장에서 뒤그루작물수확을 적기에 질적으로 하기 위한 준비를 다그치고있다.

올해 앞그루작물수확을 기어이 점령하는데 열의를 안고 한사 팔같이 펼쳐나선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농기계의 수리정비를 선행시켰다. 작업반에서는 앞그루 대 앞그루작물의 두벌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농기구수리정비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농장원들은 모연양관리와 병충해방어를 기술적으로 단련시켜서 특정한 모를 길러내기 위해 투수판을 아낌없이 바치고있다.

제2작업반과 청년작업반 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앞선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지역을 부쩍 넓혀 뒤그루면적에서 정방 양곡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질체지혜를 합쳐가며 빈틈없는 준비를 갖추고있다.

다른 작업반들에서도 앞그루작물가을걷이를 끝낸 즉시 논밭갈이를 시작하고 있다. 앞그루작물수확을 심어 뒤그루농사에서 높은수출을 내기 위한 준비를 실속있게 하고있다.

본사기자



앞그루밀보리수확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있다. - 농진군농기계작업소에서 - 특파기자 찍음

# 최첨단으로 도약하는 록색에네르기제품생산기지

## 우리 랑의 현명한 경도아래 훌륭히 일떠선 광명레드, 태양전지공장을 돌아보고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새차게 지퍼올려 과학기술의 힘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아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과 경에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경도의 손길아래 제품개발 및 생산, 판매의 일

제화가 실현된 산업기지로 훌륭히 건설된 광명레드, 태양전지공장!

기술집약형기업구조를 갖춘 이 공장의 모습은 지식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웅대한 설계도가 어떻게 빛나는 현실로 펼쳐지고있는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화폭이다.

있었다고 하는 몇몇 나라에서 국가적인 중점과제, 전략과제로 선정하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있는 최첨단산업이다. 이러한 산업의 개척에서 나서는 콕콕콕직한 기술적문제들은 허다하다. 세계적으로 몇몇 나라들의 독점물품로 되어온 록색에네르기제품이 우리 나라에서 광명 생산되어나오고있다는것은 실로 자랑할만 한 일이다. 외국어의 한 다하는 전문가들이 이 공장을 돌아보고 놀라움을 표시한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이 공장의 건설과 함께 완공후 그 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주시였다.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공장의 새 제품개발과 생

산에서 중추적역할을 하여야 할 기술력강도 그흔히 꾸러주셨으며 세계적수준을 따라가는 공장이나 최첨단물건의 앞장에서 세계를 굽어보며 내달리는 공장으로 일떠세우기 위해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셨다. 그렇게 일떠선 공장이다. 지식경제시대의 의미가 집대성되어있고 또 하나의 선진산업창설의 본질이 함축되어있는 세계적수준의 록색에네르기제품생산기지의 오늘에는 위대한 장군님과 경에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보살피심과 현명한 경도의 손길이 비껴갔다.

진정 아버지장군님과 경에하는 원수님은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조명산업의 위대한 창시자이시이다.

《시대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어제날의 세것도 오늘에 와서는 벌써 낡은것으로 되고있습니다. 새 제품개발을 부단히 선행시키지 않으면 눈깜박할 사이에 세계적수준에서 밀려나게 되는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올은 말이다. 새 제품의 개발, 이것은 많은 자금의 투자와 함께 어려운 기술적문제해결을 요구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하것은 인재들의 역할이

라고 해야 할것이다.

공장에에는 규모가 큰 레드, 태양전지연구소가 있다. 여기에서 소련, 레드 및 레드등, 재료, 태양전지개발사업을 진행하고있는 연구자들은 한명한명이 록색에네르기제품개발분야의 경쟁한 실력가들이다. 연구소에는 18층에 80여대의 첨단급설비들을 갖춘 연구실과 실험실들이 훌륭히 꾸려져있다. 과학기술과 생산이 얼마만 한 높이에 서로 밀착되어있는가를 충분히 느낄수 있게 하는 세부이다. 연구력량이 조직되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레드등중명설비와 새 제품개발에서는 벌써 눈에 띄는 콕콕콕직한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현재까지 이들이 개발한 레드등은 수십종에 달한다고 한다. 레드등의 국산화실현에서도 놀라운 전진

리를 얻고있다고 한다.

또 하나의 주목되는 점은 SMT공정이다. 이 공정에서는 자동화된 레드등기판제작기능과 전자제어기판제작기능, 무연납땜기능, 자동광학검사기능을 갖춘 설비들로 여러가지 형태의 레드등기판들과 전선단들을 비롯한 각종 전자조각기판들을 만들었고있다. 공장에서 그 제작상 어려운 기술적문제들이 많이 제기되는 판형레드등, 각종 레드등의 전선단과 같은 첨단급의 제품들도 척척 생산하고있는 비결의 하나가 바로 이 공정에 있다.

**조명산업발전에서의 일대 전환**

레드라는 말이 우리 생활에서 쓰이기 시작한 때로부터 여러해가 흘렀다. 시대의 발전과 함께 새롭게 태어난 또 하나의 합성물어가 단순한 표상에 불과하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 과학과 일터, 거리 등 우리모두가 활동하고있는 그 어디에서나 형형색색의 레드제품들을 볼수 있다.

이 공장의 전시장에 들어서서 사람들은 너무도 황홀하여 눈부러 비빈다. 어찌 보면 빛의 세계같기도 하고 다른 측면으로는 색깔의 세계에 들어선 느낌도 든다.

여러가지 형식과 모양의 레드등은 용도 또한 다양하다. 실내형, 야외형레드등도 있고 기능성레드등도 있다. 건물외벽에 장식성을 할수 있게 여러가지 색깔의 빛을 내는 레드등이 있는가 하면 건물내부를 화려하게

장식하여주는 레드등도 있다. 남의것이 아니다. 우리의것이 다. 첨단을 딛고 최첨단으로 도약하는 우리의 조명산업이 낳은 귀중한 창조물이다.

탐조등을 현상시키는 투광등, 형광등과 형식이 비슷한 한 형태레드등, 백열등모양의 구형레드등을 비롯하여 종류와 가지수는 손에 꼽기 힘들 정도이다.

환경오염이 전혀 없는 레드등 리용의 경제적인의는 매우 크다. 현재 주민세대들에서 쓰는 100W백열등 한 개를 1000W등으로 교체하는 경우 1000만세에서 절약되는 전력량은 막대하다. 이것은 해마다 수십만의 석탄을 절약하는 것과 맞먹는다고 한다.

새 산업의 창설이 많은 시일과 투자를 요구한다는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더우기 록색에네르기산업은 세계적으로 가장

세계적인 선진수준의 새 산업의 탄생과 발전, 그 의미가 가지는 무게를 결코 가볍게 대할수 없다.

새 산업의 창설에 갖든 깊고 깊은 사연에 가슴이 뜨거워진다.

지금으로부터 4년전이었다. 사실 그때 우리 일꾼들속에는 레드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다. 사전에도 오르지 않은 그 말의 의미를 일꾼들에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주시고 나라의 조명산업발전의 휘황한 지평을 열어주시신분은 바로 우리의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나라의 에네르기문제를 두고 그토록 마음쓰시며 친히 공장의 부지도 정해주시고 건설력량이

제 제품개발 및 생산, 판매의 일체화

공장의 여기저기를 돌아보면 새 세기 산업혁명의 본질이 또 하나의 방향한 실례로 안겨져 있다. 특별한 설명이 없이도 지식경제시대에 대한 표상을 쉽게 가질수 있다.

제품개발 및 생산, 판매의 일체화 실현, 이것은 기술집약형기업구조를 훌륭히 갖춘 산업기지의 면모를 뚜렷이 보여주는 측면이다.

현장에서 만난 일꾼인 리성규 동무가 우리에게 한 첫말이 아

주 시사적이다.

《시대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어제날의 세것도 오늘에 와서는 벌써 낡은것으로 되고있습니다. 새 제품개발을 부단히 선행시키지 않으면 눈깜박할 사이에 세계적수준에서 밀려나게 되는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올은 말이다. 새 제품의 개발, 이것은 많은 자금의 투자와 함께 어려운 기술적문제해결을 요구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하것은 인재들의 역할이

라고 해야 할것이다.

공장에에는 규모가 큰 레드, 태양전지연구소가 있다. 여기에서 소련, 레드 및 레드등, 재료, 태양전지개발사업을 진행하고있는 연구자들은 한명한명이 록색에네르기제품개발분야의 경쟁한 실력가들이다. 연구소에는 18층에 80여대의 첨단급설비들을 갖춘 연구실과 실험실들이 훌륭히 꾸려져있다. 과학기술과 생산이 얼마만 한 높이에 서로 밀착되어있는가를 충분히 느낄수 있게 하는 세부이다. 연구력량이 조직되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레드등중명설비와 새 제품개발에서는 벌써 눈에 띄는 콕콕콕직한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현재까지 이들이 개발한 레드등은 수십종에 달한다고 한다. 레드등의 국산화실현에서도 놀라운 전진

리를 얻고있다고 한다.

또 하나의 주목되는 점은 SMT공정이다. 이 공정에서는 자동화된 레드등기판제작기능과 전자제어기판제작기능, 무연납땜기능, 자동광학검사기능을 갖춘 설비들로 여러가지 형태의 레드등기판들과 전선단들을 비롯한 각종 전자조각기판들을 만들었고있다. 공장에서 그 제작상 어려운 기술적문제들이 많이 제기되는 판형레드등, 각종 레드등의 전선단과 같은 첨단급의 제품들도 척척 생산하고있는 비결의 하나가 바로 이 공정에 있다.

생산된 레드등들을 빛, 색, 전기적정수값에 따라 자동적으로 선별, 분류 및 포장하는 측정선별공정과 진동 및 충격시험기, 고저온시험시험기, 방수시험기 등을 갖춘 레드 및 레드등중명 시험공정, 환경 및 로화시험공정도 시대적요구에 맞는 록색에네르기제품생산기지의 발전전모를 비추어주는 거울이라고 말할수 있다.

공장에에는 레드등생산선반에 대한 장악과 지휘를 과학적으로, 통일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컴퓨터에 의한 자동조종체계와 설비 및 기술감시체계, 생산 및 품질관리체계, 경영관리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져있다.

우리의 록색에네르기산업이

어떤 비사한 목표를 가지고 내달리고있으며 또 얼마만 한 높이에 올라섰는가를 알려면 태양전지연구소장에 가보아야 한다. 43층에 수십대의 현대적인 설비가 갖추어진 이곳에서는 3세대태양전지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이미 공장에에서는 결정구조태양전지보다 발전원가를 훨씬 낮출수 있는 태양전지의 개발과 생산에 눈에 띄는 전진을 이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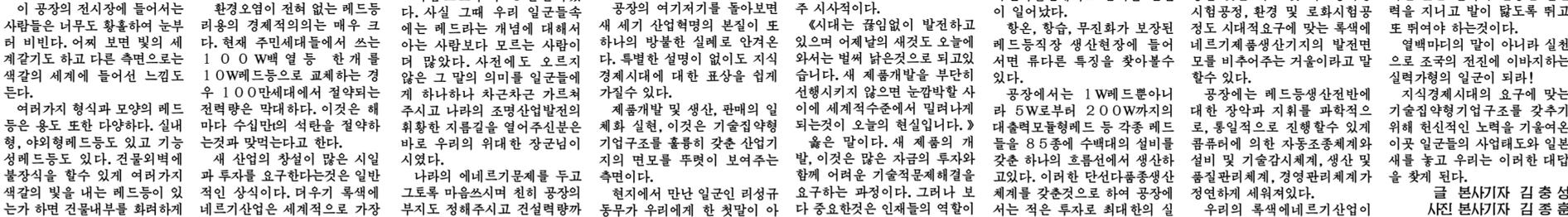
현재 공장제품들은 여러 상업망을 통해 판매되고있는데 호평이 대단하다. 얼마 있으면 전자사업거래도 진행하게 된다고 한다.

시대를 알고 시대의 요구를 느낀다고 하여 누구나 그 시대의 앞장에 설수 있는것이 아니다. 시대의 선구자, 1번수가 되려면 높은 실력과 왕강한 실천력을 지니고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어야 하는것이다.

얼백마더의 말이 아니라 실현으로 조국의 전전에 이바지하는 실력가형의 일꾼이 되라!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는 기술집약형기업구조를 갖추어 이룩 일꾼들의 사업태도와 일본새를 놓고 우리는 이러한 대담을 찾게 된다.

글 본사기자 김충성  
사진 본사기자 김종철



**우리 나라 김현경선수 2014년 아시아 청년 레슬링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

우리 나라의 김현경선수가 몽골의 울란바타르에서 진행된 2014년 아시아 청년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 영예의 1위를 하였다.

7일 여자자유형 48kg급경 중국선수와의 결승경기에서

**농업전선을 고무추동하는 현장의료봉사활동**

올해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 당이 제시한 앞목표를 기어이 점령하려는 불타는 애국의 열의는 보건성의 일꾼들의 가슴마다에도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을 위전에서 언제나 앞장에 서온 보건성에서는 올해 농촌지원기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농촌지원과 함께 현장의료봉사활동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사업들을 예견성있게 책임적으로 내밀었다.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이며 사회주의건설기지에서 힘을 집중하여야 할 주력방향입니다.》

몇몇년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전국농업부문보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서한을 보면 아안왔을 때 보건성의 책임일꾼들은 자신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우리의 농업정책을 받들어 나가는데서 성의 일꾼들은 어떤 위치에 서야 하는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에 우리도 섰다**

**보건성의 일꾼들**

성일꾼들이 중요하게 내세운 문제들중의 하나는 현장의료봉사활동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인민들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은 단순한 실무적사업이 아니라 중요한 정치사업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현장의료봉사활동이 농장원들의 애국적열의를 북돋아주는 중요한 계기로 되게 하자.

성의 일꾼들은 이런 관점에서 농촌현장의료봉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힘있게 내밀었다.

당의 예방의학정책을 관철하는데서 위생선전활동이 중요하다는것을 명심한 국가위생검역원의 일꾼들은 계절에 따르는 선전계장들을 만들어 배포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일꾼들은 선전계장들을 작성성립시키는데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시신대로 농장원들이 알고있어하는 문제들을 리해

**나이지리아 보르노주정부 비서일행 만경대 방문, 여러 곳 참관**

지다 바바 아흐메드 나이지리아 보르노주정부 비서와 일행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어르신들을 보내신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손님들은 력사의 집에 깃든 불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어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은 다음 만경대의 혁명사적들을 참관하였다.

비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소박한 가정에서 탄생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린시절부터 혁명의 큰 뜻을 키우시며 성장하시였다.

만경대 일가분들께서도 한평생 나라

**백암땅에 피어나는 정성의 꽃**

**떡포지구로 달려나간 광강도산원 의료일꾼들**

이와 함께 도산원의 의료일꾼들은 차례로 들쭉잡을 마련하여 산모들에게 공급하는 체계도 정연하게 세워나갔다.

언제나 건강한 몸으로 당면한 농사일을 더 잘하도록 적극 고무해 주는 김명진, 박은하, 정성경 동무들 비롯한 치료대원들의 다심한 정은 이곳 제대군인안해들을 위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체제의 우월성과 고마움을 가슴이 절감하도록 하였다.

하기에 해산과정에 심한 출혈로 중태에 빠졌던 육천농장의 한 농장원은 자기들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 바친 의료일꾼들을 보면서 고마운 조국을 위해 한몸바쳐갈 불같은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 치료대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떡포지구의 많은 여성들이 군이나 도에 가지 않고도 값비싼 의료봉사의 하나인 자궁외과에 의한 무통해산으로 귀여운 육동자를 받아안았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 건강을 되찾고 싶었다. 이렇듯 이곳 치료대원들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의료일꾼들이 될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지난 3월 불철이아고고 하지만 맨날 날씨와 뜻밖에도 내린 폭설로 현장지도에는 잠시 걸음을 멈추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어떻게 할것인가?

몇몇 의료일꾼들은 동상을 입고 몸이 고열되고있었다. 그러나 의료일꾼들은 자기들을 기다리고있는 제대군인안해를 생각하며 주저없이 길을 떠났다. 현장지도대원들은 발목까지 폭풍 빠지는 눈을 뚫으며 떡포지구의 모든 여성들에 대한 건강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수마다에 애국의 불을 더욱 세차게 지펴주었다.

전국적으로 농촌지원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데 맞게 현장치료대원들이 의료봉사활동을 더욱 참신하게 벌리도록 적극 밀어주고 내세워주는 성당위원회와 정치사업이 큰 실적을 나타내었다. 들끓는 협동봉을 찾고찾으며 성의 책임일꾼들은 각지의료일꾼들에게 뜨거운 인간애와 높은 의식을 지니고 농장원들과 지원자들의 건강을 더욱 책임적으로 돌볼때 대해 호소하며 절된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었다.

보건성 일꾼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무한히 고무된 광강남도, 황해북도인민위원회의 일꾼들은 현장치료대원들이 의료봉사활동을 더욱 즐기게 할리도록 여러가지 사업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었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인 농업전선을 함께 지켜주시는 주인단 판공과 팀장을 지닌 보건성 일꾼들의 진취적인 사업기풍은 당면한 영농전투에 펼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본사기자 김 옥 별



**우리 나라 외무상과 감비아외무상 회담**

감비아공화국을 방문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외담당 리수용외무상과 감비아공화국 외무상의 회담이 5일 외무성청사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대표단 성원들과 우리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상대측에서 외무성 쌍무정치관계담당 부총서기, 다무협조관계담당 부총서기가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발전과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감비아외무상은 담대한 배짱으로 나라의 자주권수호와 지역의 평화, 안전보장을 위해 기울이시는 조선인민들의 최고경도자이신 김정은각하의 노력에 경탄을 금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조선정부가 감비아정부와 인

**떡포지구로 달려나간 광강도산원 의료일꾼들**

은정에 보답하고있었다. 산과 공장 김철남동무를 책임자로 하는 4명의 현장치료대가 조직되었다.

도산원에서 떡포지구까지는 거리가 멀기때문에 치료사업에는 쉽지 않은 애로가 있었다. 그러나 현장치료대는 치료조건이 불리한 속에서도 뜨거운 정성을 안고 여성들의 건강진사업에 첫째가는 힘을 냈었다.

서너달에 한번씩 종합검진을 진행하면서 이들은 여성들속에서 사소한 질병이 나타날새라 제때에 치료대책을 세워주곤 하였다.

그러던 지난 3월 불철이아고고 하지만 맨날 날씨와 뜻밖에도 내린 폭설로 현장지도에는 잠시 걸음을 멈추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어떻게 할것인가?

몇몇 의료일꾼들은 동상을 입고 몸이 고열되고있었다. 그러나 의료일꾼들은 자기들을 기다리고있는 제대군인안해를 생각하며 주저없이 길을 떠났다. 현장지도대원들은 발목까지 폭풍 빠지는 눈을 뚫으며 떡포지구의 모든 여성들에 대한 건강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진행하고 치료대책을 세워주는 등 의료봉사활동을 활발히 벌이고있다.

영농전투가 건강하게 진행될수록 이들은 농장원들과 지원자들에게 대한 건강관리에 더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특히 김군실, 리경희동무들은 긴급한 왕진이 제기될 때마다 수십리길을 걷고걸으며 많은 환자들을 어떻게 하나 완치시키기 위해 자기들의 모든것을 바쳐가고있다.

작업의 설참이면 의료일꾼들은 몸을 들어야 하니 농장원들의 건강관리를 잘해나감도 꼭 지켜야 하는것을 바쳐가고있다.

이곳 농장원들이 스프링클러는 '우리의 사선생님'이라는 호칭속에는 주인공을 위해 뜨거운 정성을 기울이고 헌신을 바쳐가는 성실한 의료일꾼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비껴갔다.

본사기자

# 《유신》 독재에 대한 역사의 엄정한 판결

최근 남조선에서 과거 《유신》 독재시기에 강행된 반인권적만행들의 진상이 드러나고 당시 모략사건들의 피해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되고있다. 남조선의 대법원은 남조선해방전당사건과 관련한 피해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데 이어 얼마전 또다시 《보안법》 위반혐의를 쓰고 간첩으로 몰려 처형당한 5명의 무고한 어부들에게 무죄판결을 내리었다. 그보다 앞서 지난 1960년대에 파쇼적인 《유신》 체제를 비난한것으로 하여 무죄를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고령의 목사도 30여년만에야 억울한 무명을 벗게 되었다. 이러한 사태는 《정권》 유지위해라면 초보적인 인권마저 무릅쓰고 유린할수있는 남조선에 피비린 살포장으로 만든 박정희독재의 야수적본성과 반인권적 죄악을 낱알이 고착하고있다.

《유신》 독재자는 인민의 머리에 군림한 회색의 파쇼독재이며 두손을 인민의 피로 물들인 극악한 출혈귀였다. 인류사에는 패물과 정점으로 악명떨친 폭군들이 한없이 있지만 《정권》 안보를 위해 남조선정부를 전대미문의 인간도 살상조 전진시킨 《유신》 독재자와 같은 피에 주린 살인마는 알지 못한다.

박정희독재가 불법적인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것은 비극적인 류형학구의 서막이었다.

박정희독재는 집권하자마자 폭압무력과 기구들부터 대대적으로 확장하였던가에는 못마더야 정보망, 감시망들을 거미줄처럼 늘어놓고 무서무서한 정보정치, 공포정치를 실시하면서 당국의 반역정책에 항거하고 연복통일을 주장하는 사람

들을 다치지대로 탄압, 학살하였다.

지금도 남조선인민들은 《유신》 독재시기에 조작된 수많은 반공화국모략사건들에 대해 치를 떨고있다. 사회정치정보와 조국통일을 주장하였다 하여 민족일보 사장을 《북간첩》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았다는 터무니없는 죄명을 씌워 학살한 《민족일보》사건, 당국의 사대매국죄를 반대하는 투쟁에 나선 사람들을 《연탄세력》으로 몰아 처형한 인민혁명당 사건, 반공화국주화투쟁을 탄압할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순진한 제일동료학생들에게 《정부전복》이라는 어마어마한 딱지를 붙여 살인적인 고문을 가한 학원간첩 단사건 등 박정희독재가 조작한 반공화국 모략사건들은 이루 헤아릴수 없다. 《유신》 독재자에 의해 간첩사건들 비롯한 각종 반공화국모략사건들이 무더기로 작조되는 속에 양심적이며 진보적인 인사들에 대한 불법체포, 불법재판, 불법처형이 판무하였고 피의중앙정보부의 남산지하식은 음모와 살육의 대명사로 략인되었다.

《유신》 독재자가 이처럼 무고한 인민들을 파쇼모략의 제물로 삼으며 대종적 학살행위를 끊임없이 일삼는 목적은 다름이 아닌 장기집권야망의 실현이었다. 하지만 파쇼독재자들이 제이무리 모략과 인민탄압에 미쳐달려오다 권력을 오래 유지할수 없었다.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고투없는 항쟁에 의해 《유신》 독재체제는 밀부리쳐 휘튼락 되었으며 결국 역도는 심복졸개의 총탄에 맞고 개죽음을 당하였다. 이것은 국악한 독재파의 피할수 없는 운명이었다. 권력욕에 찬양하여 인민들을 다치는데로 학살한 박정희독재의 반인권적죄악은

철저히 결산되어야 한다. 지금 남조선에서 과거의 치명적인 살인만행들의 진상이 계속 드러나고 피해자들에게 무죄선고가 내려지고있는것은 《유신》 독재자에 대한 엄정한 판결이다. 위와 같은 것들은 결코 오메까지 못하며 진실은 어느때든지 밝혀지기가마련이다.

남조선에서 악몽과도 같은 《유신》 독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박정희독재가 역사무대에서 사라진 때로부터 수십년세월이 흐른 오늘 남조선에서는 그 무서리치는 암흑시대가 되살아나고있으며 《유신》 독재자와 같은 반인권적만행들이 벗어지지 감행되고있다.

박근혜가 청와대에 들어왔기 바쁘게 정 보보원과 경찰을 비롯한 폭압기구들을 강화한것은 《유신》 독재자의 통치방식과 수법 그대로이다. 박근혜당은 통합진보당, 전교조, 인터넷신문 《자주민주》를 비롯하여 저들의 독재통치에 반기를 드는 진보적인 정당, 단체, 언론들을 무차별하게 탄압하고 박해하고있으며 각종 사건사건들을 조작하여 주도의 정치적위기를 모면하고 《정권》을 유지하려고 발랑하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각계 단체들과 인사들은 물론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과 지어 종교인들까지 《종북》세력으로 몰려 탄압당하는 사태가 빚어지고있다.

최근 피비린 당국이 《세월》 호침물사고 피해자가족들과 인민들에게 감행한 파쇼적악행은 《유신》 독재통치와 조공도 다를바 없는 박근혜독재통치의 본성을 똑똑히 드러내보여주고있다. 알라진바와 같이 《세월》 호대참사를 일으킨 박근혜

당은 인민들앞에 무릎을 꿇고 사회합대신 저들의 반역적악정에 항거해나선 피해자가족들과 시민, 청년학생들을 폭압경찰들을 내몰아 다치는데로 탄압하고 무차별적으로 립행해가는 파쇼적폭행을 감행하였다. 피비린 경찰은 집회, 시위를 강제해산시키기 위해 남포로소를 가리지 않고 폭행을 가하고 최루탄을 살포하였는가 하면 나어린 중학생들까지 마구잡이였다. 피비린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교원들을 정계처벌하는 망동도 서슴지 않았으며 《세월》 호침물사고 관련하여 당국을 비난한 기자들까지 탄압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유신》 독재가 부활되고있으며 민주주의와 인권이 강그러워진 현실과 맞지 않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지금 남조선의 가는 곳마다에서 《이제 더는 못 참겠다.》, 《절대로 가만 있지 않겠다.》는 항거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세월》 호침물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1000만명서명운동이 광범히 전개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유신》 독재의 부활, 피비린 파쇼독압통치를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는것이 남조선인민들의 결연한 의지이다.

파쇼독재는 결코 만능이 아니며 승리는 정의와 진보를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에게 있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자신들에게 고통과 치욕, 죽음을 강요하는 파쇼독압통치를 절대로 묵과하지 말아야 하며 단결의 힘으로 《유신》 독재의 부활을 단호히 저지파란시켜야 할것이다.

은 정 철

# 상전과 주구의 위험한 북침공모결탁

남조선피비린이 외세와의 북침공모결탁에 날이 갈수록 기세를 부리고있다. 며칠전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미국, 일본, 남조선의 군부당국자회담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여기에서 피비호전파들은 상전들과 함께 《북핵 및 미사일위협》과 관련한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그에 대해 계속 검토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정보공유의 제도화를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를 내오고 3자안보협력을 확대할것을 모의하였다. 피비들은 그보다 앞서 워싱턴에서 있는 미국, 일본, 남조선 제6차 안보회의라는데서 《국방협력증진》의 간담회에 정보공유를 통한 군사적협력과 긴밀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공약을 한바 있다. 이것이 그 무슨 《위협》에 대처한다는 구실비에 동족을 해치기 위한 외세와의 군사적결탁을 강화하는 용납 못할 민족반역행위라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로써 외세에 빌붙으며 북남대결과 전쟁도발 책동에 광분하는 박근혜당의 추악한 정체는 다시금 낱알이 드러났다.

지금 미국과 일본, 남조선의 3자사이에는 정보공유체제수립문제까지 전면에 나서고있다. 피비들이 추구하고있는 정보공유란 《북의 핵, 미사일위협》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비할 목적으로 그와 관련한 정보들을 3자가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는것이다. 3자사이의 정보공유체제수립은 미국이 적극 부추기고 박근혜당이 그에 적극 찬동해나면서 급속히 추진되고있다. 피비들은 남조선 각계의 반대에 불구하고 미국, 일본 정보공유망해각자를 제결하는 방식으로 상전들과 북침전쟁도발을 위한 정보공유체제를 구축하려 하고있다. 미국, 일본, 남조선사이에는 군사정보분야에서의 협력체제가 완성되게 되면 그것은 우리 공화국과 동북아시아지역을 겨냥한 미사일 방어체제의 완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사태이다.

피비호전파들은 자제의 선제공격체제인 《길

체인》과 미사일방위체제를 미국의 미사일방위 체계와의 《상호운용성》 보상으로 서로 편결시키고 그것을 수단으로 북침공모를 달성하려고 하고있다. 박근혜당이 말로는 미국의 미사일방위체제에 가담하는 일은 없다고 우기고있지만 실지에 있어서 피비들은 교활하고 음모적인 방법으로 그에 적극 발을 들여놓으려고 조선반도에서의 핵전쟁발발위험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지배를 강화하면서 피비들을 대아시아적전략실현의 돌격대로, 북침전쟁수행수단으로 써먹으려는것이 미국의 음흉한 기도이다. 그런데 미국의 가련한 식민지전쟁버승급인 박근혜당은 외세의 범죄적인 계획에 놀아나면서 상전을 등에 업고 민족의 머리에 핵전쟁재난을 시샘없이 몰아오고있다.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미국, 일본, 남조선의 군부당국자회담은 3자의 군사적공모결탁이 매우 위험한 단계에 들어서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남조선피비들이 그 무슨 《위협》을 운운하며 미국과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적공조를 강화하고있는것은 가독이나 첨예한 북남관계를 더욱 파국으로 몰아가고있으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심히 해치고있다. 이런 도발적인 망동은 박근혜당이 북남사이의 긴장완화와 평화가 아니라 우리와 한사코 대결하며 북침전쟁을 도발하는 길로 거침없이 나아가고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외세의종과 동족대결에 찬양이 되어 날뛰는 박근혜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북남관계의 개선은 고사하고 전쟁밖에 터질것이다 없다.

피비들이 내외의 단죄규탄에도 불구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전쟁도발에 계속 무분별하게 날뛰던 그로부터 차제결정은 종국적결정명분이다.

심 철 영

이것이 매우 위험한 사태이다. 피비호전파들은 자제의 선제공격체제인 《길

# 반역 《정권》은 노호하는 민심의 격랑속에 수장되고야말것이다

## 파쇼 폭압에도 굴함없이 투쟁

남조선에서 《세월》 호침사 를 빚어낸 피비당국의 반인권적 악당과 파쇼폭압체제를 단죄 규탄하는 각계의 대중적투쟁이 날로 치열해지고있다.

지난 5월 29일 남조선의 《KBS》 방송사 로조원들은 당국의 어용나팔수로서 《세월》 호침사의 진상을 외목보도하는데 그 누구보다 앞장섰던 김현영 사건의 퇴진을 요구하여 총파업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KBS》 방송사내에서 별도의 단계로 제각기 활동하던 로조원들은 하나의 목격담장을 위해 서로 힘을 합쳐 파업투쟁을 벌였다.

로조원들은 자신들의 파업은 목적과 절차 등에 있어서 명백한 합법적파업이라고 주장하면서 김현영사건의 퇴진을 위한 공동투쟁에 떨쳐나섰다. 그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의지를 표명하면서 날이 갈수록 기세를 올리고있다.

한편 남조선의 대학생들은 얼마전 청와대앞도에서 《세월》 호침사를 초대한 부패무능한 피비당국을 규탄하는 기습시위투쟁을 벌였다. 그들은 《세월》 호침사 책임자라, 《김기춘 비서실장 파면하라》는 구호를 웨치며 집권세력의 죄악을 폭

로하는 성명서를 배포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비당국은 경찰무리를 내몰아 시위에 참가한 6명의 대학생들을 체포, 립행해가는 파쇼적폭행을 감행하였다. 대학생들에게 짐승처럼 달려든 피비경찰들은 학생들에게 마구 폭행을 가하며 그들을 강제로 끌어갔다. 경찰장대들가운데는 지어 자동차소총을 휴대한자까지 있었다. 경찰의 자리에 기어오른것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야 북남관계에 있어서야 커다란 불행이었다. 피비교육부가 박근혜퇴진을 등을 선한한 1만 5 853명에 달하는 교원들을 모조리 정계해고했다고 공표한 후 그에 반

발하는 각계의 시국선언투쟁도 날로 강화되고있다. 1000여명의 학부형들은 《누가 누구를 징계하느냐》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청와대의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박근혜야말로 눈을 편히 뜨고 무고한 300여명의 생명을 바다에 수장시켰고 분노한 민중의 눈과 입을 막았으며 집권안보를 위해 진실을 은폐하고 여론을 조작했다고 고발하면서 《정말 투쟁을 해야 한다. 면 그건 당신들 당국자들》이라고 규탄해나섰다.

남조선의 헌신대학교의 67명의 교수들도 《세월》 호침사

와 관련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면서 피비당국의 무능력과 무책임한 망동을 규탄하였다. 교수들은 《정권》이 이렇듯 무능과 부패의 고통을 공감하는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그리고 시민사회의, 로동운동단체들과 같이 손을 잡고 연대하여 《박근혜 (정부)와 탐욕스런 자본주의를 바꾸자.》고 호소하였다.

이것은 파쇼폭압으로 《세월》 호침국을 수습해보려는 피비당국의 책동이 강화될수록 남조선인민의 분노는 더욱 크게 폭발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박철준

## 지란받는 《관피아》 두목

남조선에서 《세월》 호침사가 일어난 후 책임회피에 몰두하던 집권자요즘 《관피아》에 대해 떠들던 당국 그 무슨 《개혁》을 할듯이 뉘뉘새를 피우고있다. 최근 남조선에 널리 퍼진 《관피아》라는 말은 《세월》 호침사가 생겨났다. 《세월》 호침사가 피비당국자들의 무능과 무책임으로부터 초래된 것이라하는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대해 남조선 언론들이 부패무능한 관료들이 판을 치며 온갖 악을 선생시키는 남조선의 현실을 세계적으로 악명높은 범죄집단의 대명사인 마피아에 비유하여 개관련수부터 《관피아》라는 말이 유행되게 되었다.

그런데 얼마전 《대국립단화》라는것을 한 박근혜는 약삭바르게 그 말을 리용하여 《관피아개혁》을 추진할것이라는니 하고 공언하였다. 한편 울며 겨자먹기로 지금까지 싸고들던 청와대 안보실장 김기춘, 정보원장 남재준의 사표를 받는 놀음까지 벌여놓았다. 《세월》 호침사가 몇몇 수하졸개들과 판로조직의 잘못으로 빚어졌다고 하면 여론을 옹호하고 자기는 그 책임이 전혀 없으며 자기는 박근혜의 처사는 실로 교활하고 변변스런거 찍어 없는것이다.

가관은 저들에게 쏘던 여론의 눈길을 흐려놓기 위한 술술이

## 4대강정비사업의 감사결과를 호지부지해라

4대강정비사업의 감사결과를 호지부지해라하고 피비정보원의 대동령정기개입사건, 서울실공무원간첩사건증거조작 등 각종 부정부패와 모략행위를 앞장에서 지휘하였다. 또한 《규제론》의 간담회에 청와대의 재발기전의 유착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다. 《락한신사》 놀음으로 언론장악수도에 피는이 되어 날뛰면서 남조선사회를 황폐로 만든 범죄소굴로 만드는데 한 몫 단단히 하였다.

이반에 《세월》 호대참사가 일어나게 된것은 이른바 《락신》을 맨 앞선에서 뒤받침해온 김기춘의 죄악과 떼어 놓을수 없다.

남조선에서 진실로 《관피아》에 대한 개혁이 진행된다면 먼저 두목인 박근혜, 김기춘 이런 순서로 진행되어야 한다. 박근혜가 떠돌아다니는 《관피아개혁》이라는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의 서훈짜리기만이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는 박근혜야말로 온갖 범죄와 사교를 조장하는 장본인이라고 규탄하면서 그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 해나서고있는것이다.

박근혜당이 제이무리 오그 랑수를 써서 저들의 반인권적 정체를 그 무엇으로도 가리울수 없다. 민심을 분노케 하는 이런 자들이 처벌될 곳은 역사의 시궁창밖에 없다.

본사기자

이것이 매우 위험한 사태이다. 피비호전파들은 자제의 선제공격체제인 《길

리명박역도가 《천안》 호사건을 코에 걸고 《5. 24 조치》라는것을 실행한지 4년이 넘었다. 이를 계기로 남조선에서 《5. 24 조치》에 사망선고를 내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는 속에 얼마전 경실련통일협회는 북남관계문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였는데 91%에 달하는 100여명이 《5. 24 조치》가 해체되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경실련통일협회는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당국이 북남대화를 재개하고 조선반도긴장완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5. 24 조치》가 남조선 각계의 중요한 도마구에 올랐다는것을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5. 24 조치》는 리명박역적파당이 남긴 북남대결의 더러운 찌꺼기이다.

북남사이의 협력교류는 서로의 분신과 오해를 풀고 관계개선을 도모하며 좁은 민족의 뉴대를 잇고 화해와 단합, 통일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보기 드문 대결치침자인 리명박역도는 북남협력교류 그자체를 악랄하게 반대하였다. 역적파당은 집권전부터 북과 남이 6. 15공동선언과

《진정성있는 태도변화》에 대해 고야대면서 그것이 없이는 어떤 북남협력사업도 《정결과를 내기 어렵다》는 구실을 내세우고 북남협력의 대문을 계속 쾡뽏 닫아메고있다.

결국 박근혜가 떠드는 《교류》와 《협력》이란 저들의 대결적홍성을 가리우며 북남관계 파국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허튼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5. 24 조치》의 철회는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의 요구이다. 《5. 24 조치》는 북남관계를 완전히 파산시켰을뿐 아니라 남측기업들과 인민들의 생활에 파국적인 후과를 몰아왔다. 피비파당이 동족에게 제제를 가한다고 취한 《5. 24 조치》로 피해를 본것은 오히려 남조선이다. 지난해 11월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5. 24 조치》 이후 3년간 남조선에서 입은 직접적인 경제적피해만도 90억US\$에 달한다. 수많은 북남협력관련 남측기업들이 줄줄이 파산되고 해이될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남조선의 야당들과 각계층 인민들은 피비당국에 반동일대결정책의 상징이며 북남관계개선의 근본장물인 《5. 24 조치》의 즉각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북남대결의 유물이며 역사의 폐기품인 《5. 24 조치》는 쓰레기통에 처넣어야 한다는것이 남조선 각계의 주장이다.

박근혜당이 민심의 요구에 귀를 틀어막고 반공화국대결책동에 계속 발악적으로 매달린다면 그들은 리명박역도와 마찬가지로 무고하고도 사살은 강조하지 않겠다.

본사기자

지금 남조선 전지역에서 피비매당의 반인권적, 반인륜적만행으로 하여 버어진 《세월》 호침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각계층 인민들의 반 《정부》투쟁이 광범히 진행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거센 반 《정부》투쟁이 주도의 정치적반란을 느낀 박근혜당은 대대적인 폭압수도에 매달리고있다.

박근혜는 《사회불안이나 분열을 야기시키는 일들은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느니 뉘니 하며 생떼같은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과 《세월》 호침사 로 분노한 민중을 향해 세력, 불순세력으로 몰아왔다.

이날 신문 《한겨레》도 사실을 실었다.

사실은 이번엔 민심의 척도라고 할수 있는 서울시장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큰 차이로 이기고 충청도지역도 야당이 휩쓸었다고 밝혔다.

여권의 전동적악마당이라고 하면 지역들에서까지 《세우리당》 후보들이 이겼을 면치 못한것은 그만큼 민심이 여권에 등을 돌렸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지방선거는 앞으로 계속될 민심의 심판의 첫걸음일뿐이라고 하면서 민심과 호흡을 함께 하지 않는다면 도태될것이라는것을 여야모두가 명심해야 한다고 사실은 강조하였다.

남조선의 참여연대가 2일 논평을 발표하여 《세월》 호침사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탄압책동에 매달리는 피비매당을

규탄하였다.

론평은 《정부》가 《세월》 호침사직후부터 민중과 언론의 입을 막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하였다.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정부》부, 처음이 《류언비어》에 단호히 대처하였다. 《세우리당》 후보들이 이겼을것을 강요하였다고 까맣혔다. 사고초기부터 《에도문위》를 해한다. 《세월》 호침사 관련 인력내 트레기물들을 단속하였다고 하면서 경찰이 수사요원 1000여명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수사소동을 벌인것은 하나의 실례라고 비난하였다. 교육부는

울이기는커녕 오히려 미행하고 감시하며 투쟁에 나서지 못하도록 각방으로 방해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5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세월》 호침사대응각계 연합회의》의 주최로 서울정계광장에서 각계층 5만 5천여명의 참가하여 전개된 촛불투쟁참가자들이 《박근혜가 책임져라!》, 《실종자를 위해 내라!》,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웨치며 청와대로 향하자 경찰들이 달려들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시위자 115명을

고있고 하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사교에 대한 대처를 더더욱 한 원인으로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정부》가 민중의 문제제기를 가로막는다면 제2의 참사가 발생하게 될것이라고 론평을 강요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서울시장의 퇴진과 박근혜의 사임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남조선연인민들

# 혁명적당건설의 빛나는 본보기를 마련하신 절세위인의 불멸의 업적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에 즈음하여

### 경축행사 여러 나라에서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에 즈음하여 말레이시아에서는 파당회가, 앙골라에서는 독보회가, 남아프리카에서는 사건전시회가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사건전시회장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전시되었다.

행사들은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말레이시아 독보 엔터프라이즈사 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정일동지는 조선인민의 자로든 어머니, 위대한 령도자, 스승이시다.

나는 조선방문을 통하여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에 대하여 절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조선로동당을 강령적인 당으로 더욱 굳건히 다지신 회사의 정치가이시다. 그의 불면불휴의 로고

### 배루정당, 단체

### 성명 발표, 인터넷에 글 게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에 즈음하여 자유루포동맹을 위한 배루 민족독립운동이 5월 28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적당건설의 본보기를 창조하셨다.

그이께서는 1964년 6월 19일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근 반세기동안 조선로동당이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반사회주의, 반공화국책동을 짓부시며 혁명적당건설을 승리로 이끌어오시어 주체혁명적당건설의 당건설업적을 높이 올리셨다. 그의 당건설업적과 선군혁명업적에 대하여 세계가 공인하고 칭송하는것은 너무나 유명하다.

6월 19일은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 세계 진보적정당들과 인민들로 하여금 김정일동지의 공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게 하는 인류사에 특기할 날이다.

우리는 김정일동지를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사회주의위업, 반제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해 투쟁하는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에게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를 보여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에 즈음하여 배루조선친선문화회회가 5월 26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김정일, 불멸의 당건설업적》,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당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들은 오는 6월 19일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라고 지적하였다.

김정일대원수님은 근 반세기에 걸치는 장구한 기간 혁명한 령도로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

의 강철의 당으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항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시라고 글들은 사술하였다. 글들은 6월 19일에 즈음하여 주체혁명의 당건설업적과 당발전의 빛나는 귀감을 창조하셨다.

김정은각하께서 건강하시기를 축원한다.

아울러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정의 위업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를 보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에 즈음하여 커트기즈스판 《커트기즈스판》인민통일공화국중앙당장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여러 나라 인사 담화 발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에 즈음하여 방글라데시, 만다인사가 5월 25일과 28일에 담화를 발표하였다.

방글라데시인민혁명 위원장 가리브 네와즈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에 즈음하여 방글라데시, 만다인사가 5월 25일과 28일에 담화를 발표하였다.

김정은각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근 반세기동안 당을 이끄시면서 당건설업적에 거대한 공헌을 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이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강화발전되도록 하시였습니다.

그이께서 계시시기에 조선로동당은 력사의 온갖 풍파와 시련속에서도 추호도 흔들리지 않는 자주적대가 굳건히 선 강위력한 당으로 강해졌습니다.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조선의 근대와 인민이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확신한다.

만다동종의 학과학연구소 소

지도사상으로 더욱 빛을 뿌리게 되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 세기 말엽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이 붕괴되고 그를 기화로 제국주의련합세력이 조선에 대한 압살공세에 총력력을 집중하였을 때 인류사에 일찍이 없었던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적방식으로 정립하시고 그 위력으로 력사의 엄혹한 난관을 뚫아 나가셨습니다.

그이께서는 또한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비롯한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과 불멸성을 과학적으로 논증하시고 조선인민이 사회주의주요조건 강성국가건설에 과감히 떨쳐나서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인류사주위업수행의 지도리념으로 내세워주신 주체사상, 선군사상은 오늘날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속에서 열렬한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김정은각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에 즈음하여 캄보디아신문, 방송들이 5월 20일부터 23일까지의 기간에 특집하였다.

신문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활동사건문헌을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뜻밖에

는 조건에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철저히 고수해나갈수 있게 하는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리론은 절대불변의 진리이며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다.

김정일동지께서 당과 인민대중을 하나의 사상의 자로든 글에 문헌 혼연일체로 만드신것은 그의 특출한 업적중의 하나이다.

조선이 세계에 몇 안되는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으로 존엄과 위엄을 떨쳐가고있는것은 김정일동지의 혁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인민위업을 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셨다.

그이께서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총진군을 이끌어가는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과 더불어 영광을 이루셨다.

국가지방 방송, 압사라 TV 및 라디오 방송, 에프엠 90.5 방송도 인민생활향상과 강성국가건설에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황당한 《위협》간판걸고 짚전본다

미군부호전세력들이 우리의 《미사일위협》설을 계속 퍼뜨리고있다. 최근 미합중국본부 부장은 그 무슨 미사일방위판권 토론회라는데서 우리의 《미사일위협》을 제거하는것이 미국미사일방위의 최우선목표라고 아무렇게나 주장했다. 우리의 란도 미사일 이 미본토에 도달할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때문에 그들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있다는것이다. 그는 《북조선이 아직 미국본토에 도달할수 있는 대륙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지 않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태세를 강화하고있다는니, 《란도미사일위협》에 대처한 남조선, 일본, 오스트랄리아 등 동맹국들과의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는니 뉘나 하는 소리도 늘어놓았다.

한편 미국신문 《월 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우리의 《미사일위협》과 관련하여 남조선에 고고도미사일방위체계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으며 이미 남조선에서 배치가능한 부지들을 조사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우리의 《미사일위협》에 대해 떠드는것은 황당한 꾀에만 지나지 않는다.

미국은 우리의 미사일 위기를 막기 위해 유럽과 중동은 물론 알라스카로부터 일본, 남조선, 필리핀, 오스트랄리아까지 미사일방위망을 늘려야 한다고 떠들고있는데 이것이 과연 초보적인 논리에 맞는것인가 하는것이다.

미국이 우리의 전쟁억제력을 결코그는 저들의 미사일방위체계 구축계획을 합리화하기 위한 유일한 구실에 불과하다.

강력한 미사일방위체계를 구축하면 저들의 피해는 극적 줄이면서도 상대측에 대한 타격효과를 최대로 높일수 있다고 보고있는 미국은 최근년간 그 실현을 위해 국정을 부리고있다. 미국회화원에 있어 말년에 통과시킨 2015년 《국가방위전환법안》에 《국방장관은 미국, 일본, 남조선 미사일위협강화방안에 대해 평가작업을 진행하고 6개월안에 하원군사위원회에 보고하라.》는 문구를 조야박은것이나 미사일방위체계의 핵심인 고고도미사일방위체계를 남조선에 배치하려고 획책하는것, 최근 미공군이 파도드 연드슨 공군기지에 있던 3대의 《글로벌 호크》부정정찰기 가운데서 2대를 일본의 미사와기지에 배치한

## 로씨야대통령 쏘련 붕괴의 후과에 대해 언급

로씨야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3일 기자회견에서 쏘련 붕괴의 후과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쏘련의 해체는 가장 큰 인도주의적 재난, 다시말하면 20세기의 인도주의적 재난의 하나였다고 밝혔다.

쏘련식 모든 공민들은 민족

대중보도수단들의 역할을 높일것을 호소

이란대통령 하산 루하니가 5월 25일 이슬람교나라 라지오 및 TV방송통행회의 개막식에서 연설하면서 대중보도수단들의 역할을 높일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대중보도수단들이 서방문화를 반대하는 전면대결전을 벌일데 대해 강조하였다.

도발행위를 중지할것을 요구

이스라엘주재 요르단대사가 3일 도발적인 행위를 중지할것을 요구하여 유대복고주의정견에 항의각서를 보내었다.

최근 이스라엘이 안전보장의 구실밑에 이슬람교도들의 알 아

## 국방력강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새로운 레이디스제 기판, 자동차생산 증대

아울러 2일 새로운 장거리 레이디스제를 공개하였다. 《카터로 명명된》이 레이디스 제는 이란이슬람교혁명군위대가 설계, 제작함으로써 탐지범위 약 1 100km이다. 체계는 24시간동안 실시간감시를 진행할수 있으며 작은 3차원목표물도 포착할수 있다고 한다.

한편 이란에서 3월 21일에 시작된 현 이란연도의 첫 2개월 동안에 자동차생산량이 지난 이란연도의 같은 기간에 비해 92.5% 증가되었다.

2일 이 나라의 메호르통신이 이에 대해 전하였다.

농촌살림집개건사업

중국의 녜화회총지치구에서 농촌살림집개건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지치구에서는 올해부터 시작하여 4년동안에 23만 4 000세대의 무너질 위험성이 있는 농촌살림집을 개건보수할것을

## 큰 물고 해

중국의 남부지역에서 큰물고 해에 의한 피해가 확대되고있다. 6일현재 광둥성, 귀주성, 광서자치구, 중칭성 등 6개의 성과 자치구, 시들에서 사망자가 수 27명에 달하였으며 2명이 행방불명되고 23만 9 000명이 소개되었다. 또한 6만 4 000여건의 살림방이 무너지거나 파괴되었고 14만ha의 면적에 심은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 총피해자수는 34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스리랑카의 서부와 남부지역에서 큰물고해를 일었다. 이틀동안 내린 무더기비로 인한 큰물로 2일현재 14명이 사망하고 철도운행이 중지되었으며 교통이 마비되었다. 총피해자수는 3 000명에 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볼리비아에서 새로 건설한 사도

것 등은 그 몇가지 실례에 불과하다. 군사전문가들은 미사일위협평가의 핵심으로 되는 고고도미사일방위체계 남조선에 배치될 경우 미국이 주변대국들을 제압할수 있을것으로 내다보고있다. 이것은 미국이 우리의 《미사일위협》을 결코 만천을 보려 한다는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하게 한다.

미국이 그 누구의 《위협》을 결코그는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나드형군사력을 조작하여 지역 안정과 전략적균형을 파괴하고 지역대국들을 견제하려는 음흉한 술책과 판권이다.

아시아태평양전략을 실현하는데 가장 리상적인 것을 아시아안나토를 창설하는것으로 보고있는 미국은 지역의 일부 추종세력들과 군사협력을 체결한다. 군사기지를 새로 꾸리고 무력을 배치한다. 예전다 하며 부산-리온 운정임을 보이고있다. 지난 시기 유럽에만 치중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몇몇 개별적인 추종세력들과만 동맹관계를 맺어온 미국은 오늘 이리저리러한 나라를 지어 팽진시기 저들의 주요전략대상으로 삼던 나라들까지 추가를 던지고있다.

최근 미국과 일본, 남조선은 정보공유방안을 논의하였다. 3자간 군사정보공유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 3각군사협력도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는것은 명백하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추종세력들과의 군사협조와 동맹관계강화의 당위성에 대해 떠들고있는데는 아시아안나토창설움직임과 절대로 때려놓고 생각할수 없다.

미국이 침략적인 아시아태평양증시전략을 합리화하기 위해 잊지도 않는 우리의 《위협》을 떠들어도 소용없다.

우리 공화국은 지난 기간 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과 직결되어있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왔다.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 조선반도와 지역 평화와 안전을 위해 자기 할바를 다할것이다.

아시아안나토를 조작하여 그것을 도구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지배하려는 미국의 범죄적책동은 절대로 합리화할수 없으며 파란을 면치 못할것이다.

국제적으로 미국 중립책의 우주군사화, 우주독점책동에 맞서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이고있다.

지금 미국의 우주독점책동을 끝장내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있는 속에 미국의 GPS는 중국, 로씨야, 유럽의 독자적인 전지구위성추진체계에 의하여 밀려나고있다.

2011년 12월 27일부터 시험봉사를 시작한 중국의 북두위성항법체계는 기본적으로 완성되었다.

로씨야는 올해 3월 24일 또 한기의 《글로나스-M》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발사하였다. 부연대통령은 글로나스체계의 민용성을 높이고 위성들의 운용 수명을 늘려 글로나스 미국

제78차 세계남자빙상호계이선수권대회소식

국제빙상호계이선수권대회 제78차 세계남자빙상호계이선수권대회가 5월 9일부터 25일까지 벨

세계현대5종경기리엔 2014년 국제청소년현대5종경기리엔 대회가 열리며 마자르의 부다페슈트에서 진행되었다.

이런 대회에서는 이렇거나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쟁취하여 최준대활목수

세계청소년현대5종경기리엔 대회에서 성적이 높은 4개 팀이 결승단계경기에 진출하였다. 결승경기에서 로씨야팀이 핀란드를 5:2로 이기고 5번재로 우승하였다.

이런 대회에서는 이렇거나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쟁취하여 최준대활목수

## 업을것이란 규탄과 배경, 국제적인 고립

주권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내정간섭행위는 자주와 평화를 지향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결코 통할수 없다.

올레예프의 집권초에 갈루아, 베를라 하는 식으로 회색이 내정간섭행위를 일삼는 오만무례한 처사가 국제무대에 서 복잡한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비난만을 자아내고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끊임없는 내정간섭행위가 대표적 실례로 된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이 이젠 대통령 차베스가 작성한 사회주의건설강령을 법률로 선포하였다고 미국은 사보주의기지를 들고고나아가는 베네수엘라를 눈여겨 보아, 베를라 여기며 나라의 합법적인 시위자들을 위협하여 위대한 내정간섭과 정부전복책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최근에도 미국회에서는 베네수엘라를 반대하는 경제제재와 내정간섭행위에 대한 미국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미국언론들이 베네수엘라의 반정부세력을 평화적인 시위자들에게 지원사실을 오도하고있다.

이와 관련한 소식은 전세계에 알려지고있다. 미국은 사보주의기지를 들고고나아가는 베네수엘라를 눈여겨 보아, 베를라 여기며 나라의 합법적인 시위자들을 위협하여 위대한 내정간섭과 정부전복책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최근에도 미국회에서는 베네수엘라를 반대하는 경제제재와 내정간섭행위에 대한 미국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미국언론들이 베네수엘라의 반정부세력을 평화적인 시위자들에게 지원사실을 오도하고있다.

이와 관련한 소식은 전세계에 알려지고있다. 미국은 사보주의기지를 들고고나아가는 베네수엘라를 눈여겨 보아, 베를라 여기며 나라의 합법적인 시위자들을 위협하여 위대한 내정간섭과 정부전복책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세계가 최초의 인공지구위성발사에 화환을 올린 때로부터 반세기 이상이 흘러간 오늘날 100여개에 달하는 나라들이 국제우주조약에 가입하고 우주정복에 뛰어들었다.

최근년간에만 도 여러 나라들에서 통신과 기상관측 등 평화목적의 위성과 기타 우주기구를 경쟁적으로 쏘올린 것은 그 뚜렷한 증시로 된다.

엄마친 중국은 《실천 1호 06성》 위성을 성공적으로 우주에 진입시켰으며 2020년까지는 우주궤도를 도는 우주비행선과 위성 등을 모두 200개 이상으로 늘릴 전망계획을 세웠다.

세계가 최초의 인공지구위성발사에 화환을 올린 때로부터 반세기 이상이 흘러간 오늘날 100여개에 달하는 나라들이 국제우주조약에 가입하고 우주정복에 뛰어들었다.

최근년간에만 도 여러 나라들에서 통신과 기상관측 등 평화목적의 위성과 기타 우주기구를 경쟁적으로 쏘올린 것은 그 뚜렷한 증시로 된다.

엄마친 중국은 《실천 1호 06성》 위성을 성공적으로 우주에 진입시켰으며 2020년까지는 우주궤도를 도는 우주비행선과 위성 등을 모두 200개 이상으로 늘릴 전망계획을 세웠다.

오늘의 세계

세계가 최초의 인공지구위성발사에 화환을 올린 때로부터 반세기 이상이 흘러간 오늘날 100여개에 달하는 나라들이 국제우주조약에 가입하고 우주정복에 뛰어들었다.

최근년간에만 도 여러 나라들에서 통신과 기상관측 등 평화목적의 위성과 기타 우주기구를 경쟁적으로 쏘올린 것은 그 뚜렷한 증시로 된다.

엄마친 중국은 《실천 1호 06성》 위성을 성공적으로 우주에 진입시켰으며 2020년까지는 우주궤도를 도는 우주비행선과 위성 등을 모두 200개 이상으로 늘릴 전망계획을 세웠다.

GPS보다 이 어느 측면에서도 뒤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통가하도록 할것을 호소하였다.

유럽의 갈릴레오체계는 모두 30개의 인공위성을 발사하여 구축하게 되는데 지구상의 목표 확정하는데는 오차범위를 미국 GPS의 10m 보다 훨씬 작은 1m로 좁히게 된다고 한다. 유럽연합위원회에서 갈릴레오체계를 담당하고있는 한 관리는 미국의 GPS로부터 갈릴레오를 완전히 독립시킬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인디아는 자체로 개발한 항법위성 《IRNSS-1A》를 쏘올렸다.

이 위성은 인디아지역항법위성체계를 형성하기 위해 발사하기로 계획된 7개 위성중에서 처음으로 되는것이다. 위성은 국내는 물론 인디아국경으로부터 1 500km 떨어진 곳에 있는 사용자들에게도 정밀한 위치 정보를 제공할수 있다고 한다.

미국을 정복하여 국가의 발전과 민족의 부강번영을 도모하려는것은 인류의 공통된 념념이고 의지이다.

평화적우주개발을 위한 세계적인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것이며 우주를 군사화하여 세계를 지배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과 추종세력들의 책동은 국제규탄배격을 면치 못할것이다. 김철률

세계현대5종경기리엔 2014년 국제청소년현대5종경기리엔 대회가 열리며 마자르의 부다페슈트에서 진행되었다.

이런 대회에서는 이렇거나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쟁취하여 최준대활목수

세계청소년현대5종경기리엔 대회에서 성적이 높은 4개 팀이 결승단계경기에 진출하였다. 결승경기에서 로씨야팀이 핀란드를 5:2로 이기고 5번재로 우승하였다.

이런 대회에서는 이렇거나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쟁취하여 최준대활목수

세계가 최초의 인공지구위성발사에 화환을 올린 때로부터 반세기 이상이 흘러간 오늘날 100여개에 달하는 나라들이 국제우주조약에 가입하고 우주정복에 뛰어들었다.

최근년간에만 도 여러 나라들에서 통신과 기상관측 등 평화목적의 위성과 기타 우주기구를 경쟁적으로 쏘올린 것은 그 뚜렷한 증시로 된다.

엄마친 중국은 《실천 1호 06성》 위성을 성공적으로 우주에 진입시켰으며 2020년까지는 우주궤도를 도는 우주비행선과 위성 등을 모두 200개 이상으로 늘릴 전망계획을 세웠다.